

2021
기독교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Part1

코로나19, 청년, 기독교(1):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

Part2

코로나19, 청년, 기독교(2):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

일시 2021년 1월 27일(수) 오후 2-4시
참가방식 유튜브 온라인 중계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자료집 목차

Part1

코로나19, 청년, 기독교(1):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

p 3

정재영 교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Part2

코로나19, 청년, 기독교(2):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

p 50

송인규 소장 | 한국교회탐구센터

안내사항

p 66

*자료집과 영상은 한국교회탐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기독교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Part1

코로나19, 청년, 기독교(1):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조사 의도

- 최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교회의 노쇠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음.
- 교회에서는 청년과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만 19~39세 개신교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7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별/연령 비례할당추출 - 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근거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7\%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0년 12월 30일 ~ 2021년 1월 5일(7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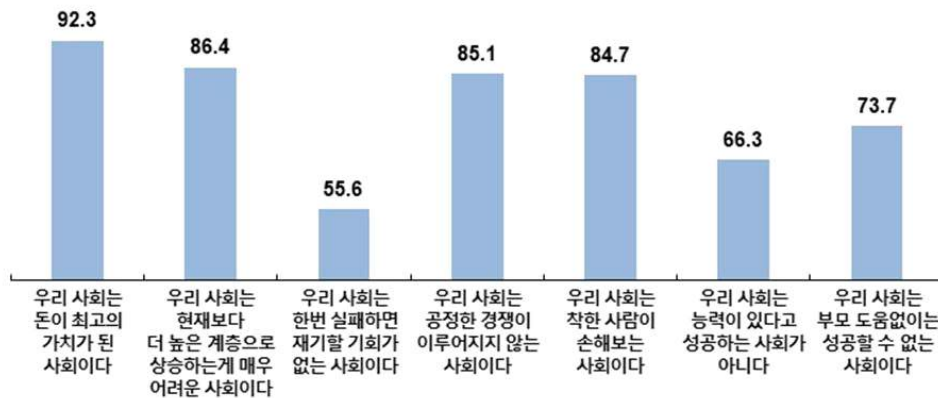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700)	100.0
성별	남자	(319)	45.6
	여자	(381)	54.4
나이	20대	(325)	46.4
	30대	(375)	53.6
교회 출석	출석자	(558)	79.7
	가나안성도	(142)	20.3
본인 경계 수준	상	(41)	5.9
	중	(284)	40.6
	하	(375)	53.6
신앙 단계	기독교 입문층	(257)	36.7
	그리스도 인지층	(203)	29.0
	그리스도 친밀층	(164)	23.4
	그리스도 중심층	(76)	10.9
향후 신앙 유형	탈 기독교인	(30)	4.3
	문화적 기독교인	(18)	2.6
	가나안 성도	(279)	39.9
	충실한 기독교인	(373)	53.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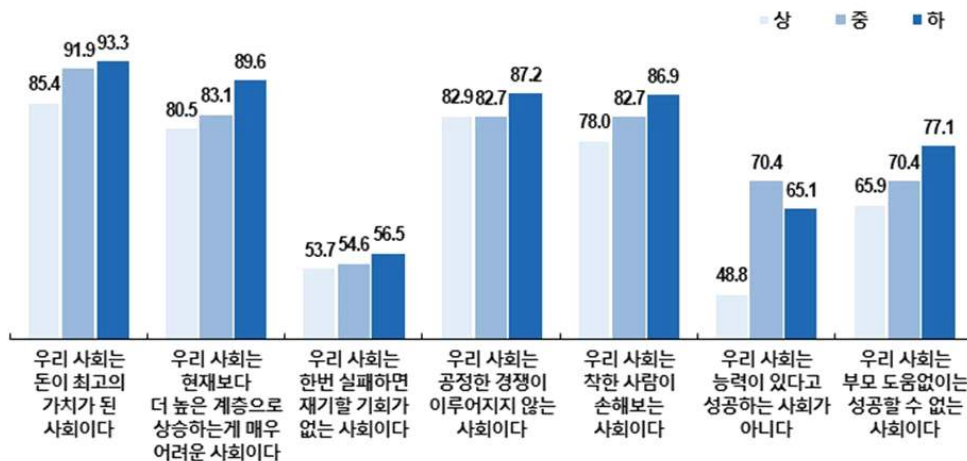
1.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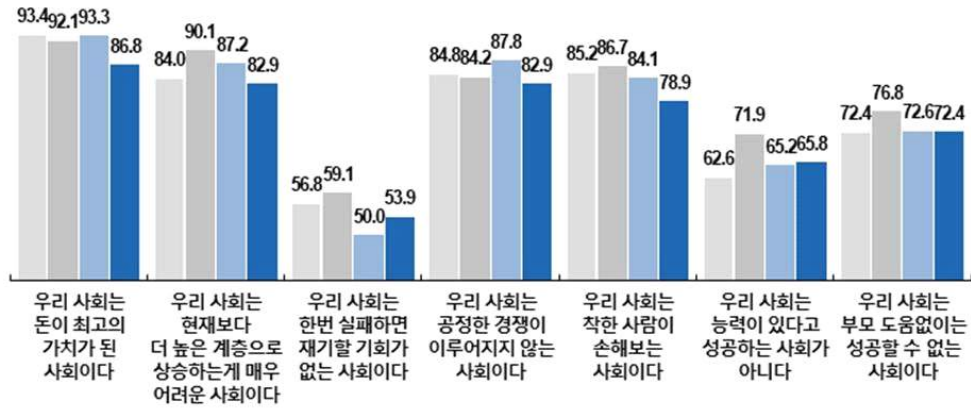
‘돈이 중요’한데 ‘계층 이동이 어렵다’ 보니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사회가 ‘불공정한 경쟁 사회’라는 인식(85.1%)으로 이어지고 이런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손해’ (84.7%) 보며,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66.3%)라는 인식이 팽배함.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73.7%)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

경제 수준별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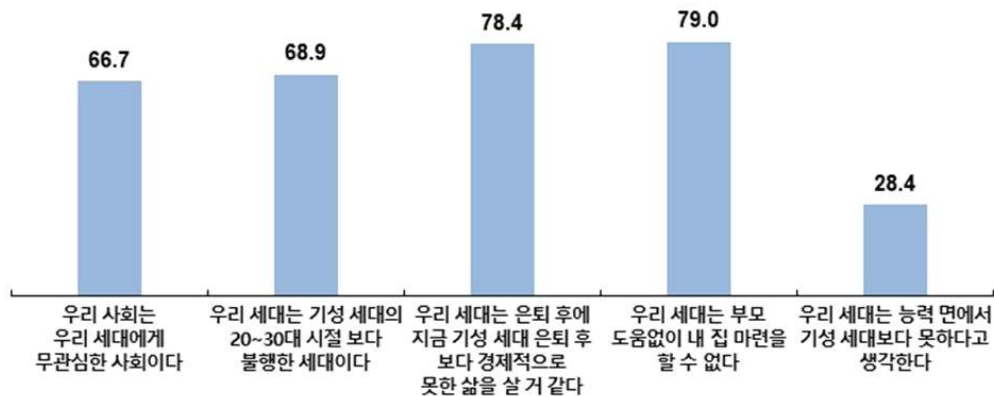


신앙 단계별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 기독교 입문층 ■ 그리스도 인지층 ■ 그리스도 친밀층 ■ 그리스도 중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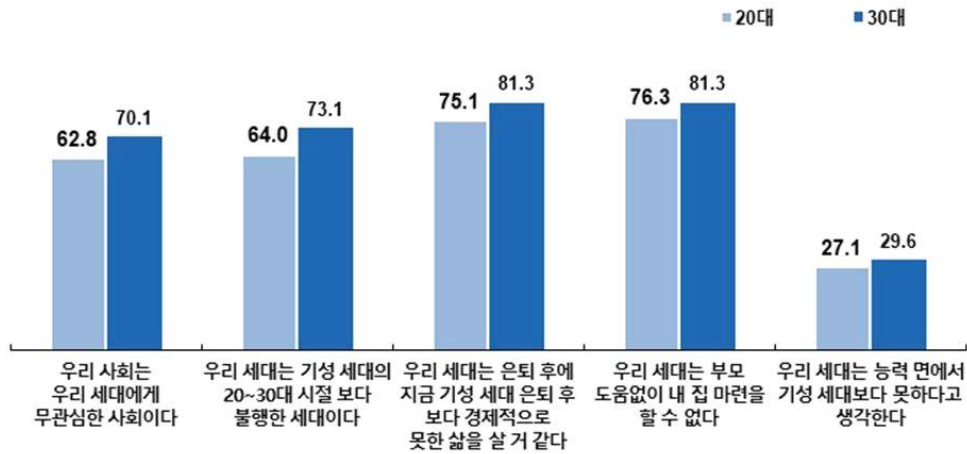


청년세대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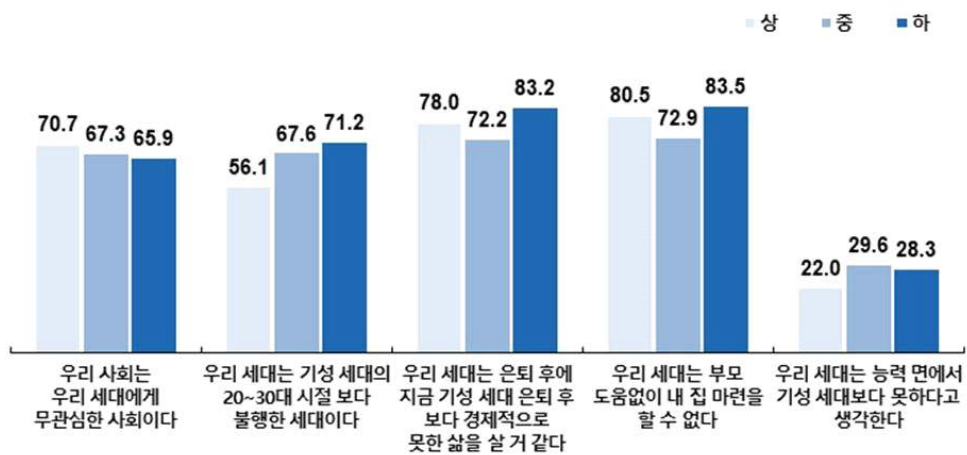
현재보다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가 처해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엿보임. 청년 세대를 둘러싼 현실이 어렵지만 기독 청년은 '청년이 능력 면에서 기성 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능력 면에서는 뒤질 것이 없지만 사회적 경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됨.

연령별 청년세대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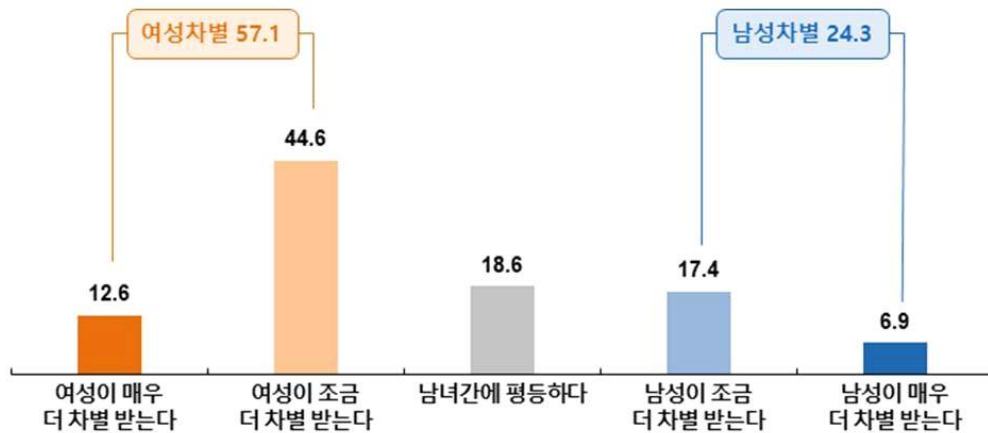
30대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20대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모의 도움과 지원을 받는 20대를 벗어나 30대가 되면 사회가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현실에 대한 암울함이 더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음.

경제수준별 청년세대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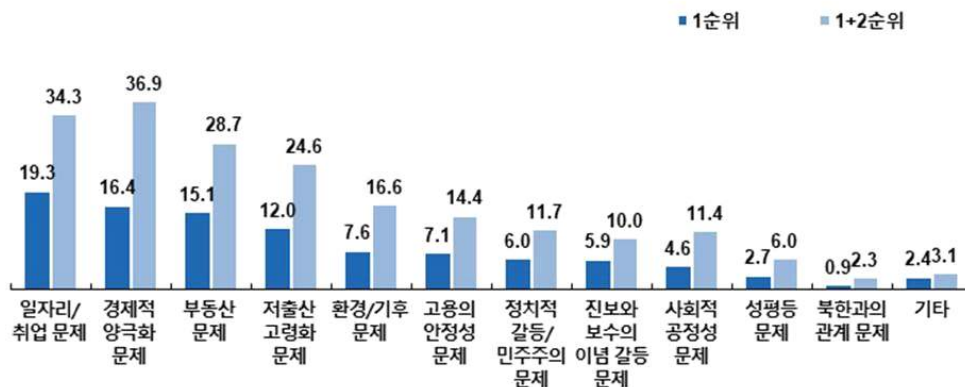
'기성 세대의 20~30대 시절보다 불행한 세대'라는 현재 상황 인식과 '은퇴 후에 지금 기성 세대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거 같다'는 미래 전망 인식 모두 '하'층 청년이 '상'층과 '중'층 청년보다 더 비관적이었음.

남녀차별에 대한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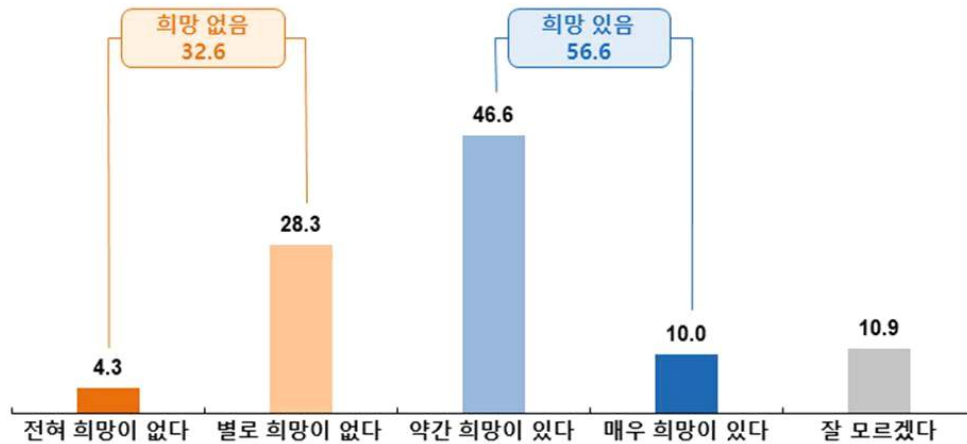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데에 남성의 절반 가량인 48.6%가 동의했는데,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데에 여성은 85.8%가 동의해서 남녀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음.

한국사회의 직면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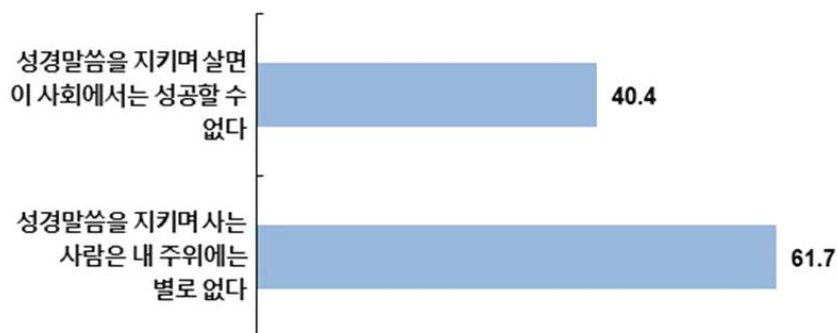
1순위+2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20대는 ‘일자리/취업문제’(44.9%)를 ‘경제적 양극화 문제’(30.8%)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30대는 ‘경제적 양극화’(42.1%)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 문제’(31.5%)라고 응답했음. ‘일자리/취업문제’는 취업을 앞둔 학생(49.6%) 뿐만 아니라 ‘블루칼라’(47.1%)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이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한국사회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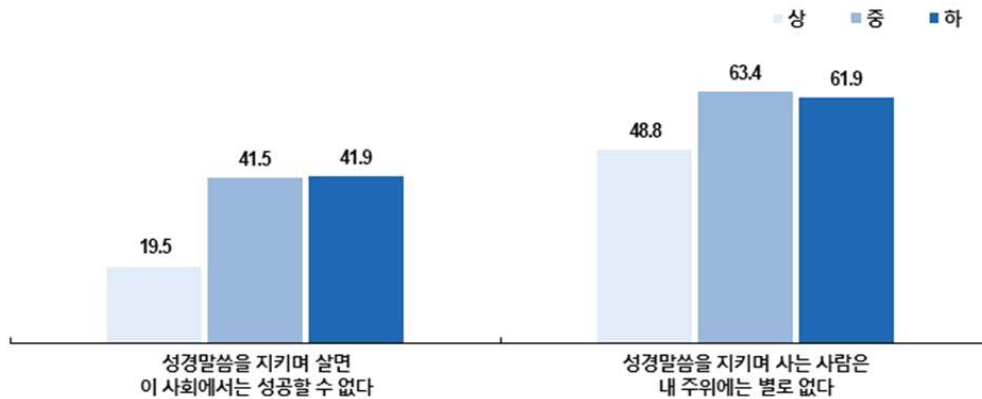
3분의 1이 '희망이 없다'고 응답하여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전망하는 청년이 적지 않았음. 신앙단계별로, 그리스도 중심층의 64.5%가 '희망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졌음.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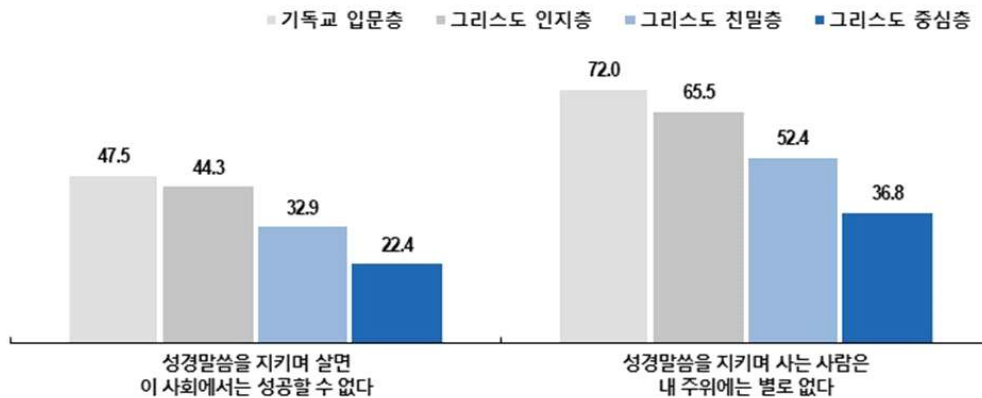
젊은 기독 청년들 10명 가운데 4명이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고 인식'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 청년들이 현실의 삶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성경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한 것도 '성경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이에 대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동의율이 더 높아서 가나안 성도들이 주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음.

경제수준별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 인식



본인 경제수준이 '상'층인 경우 동의율이 낮았음. 성경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성공할 수 있으며, 본인 주위에는 성경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중'층과 '하'층의 청년들은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현실의 벽을 크게 느끼고 있음.

신앙단계별 성경적 삶의 현실적 가능 여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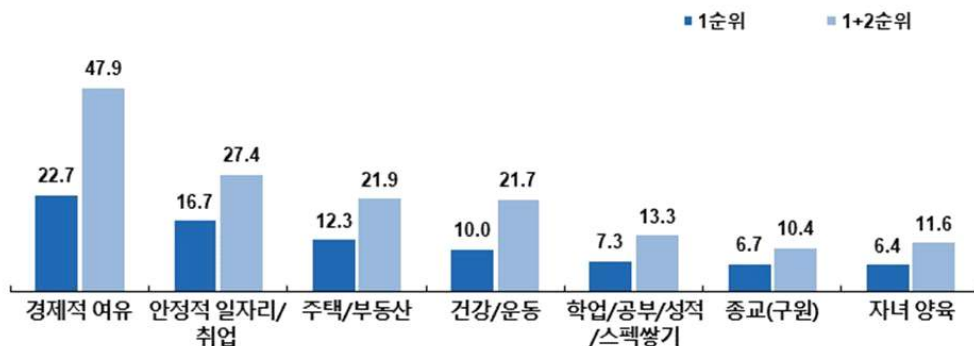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성경적 삶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이 드러남. 본인 경제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서 '상'층의 여유가 보인다면, 신앙단계에서는 성경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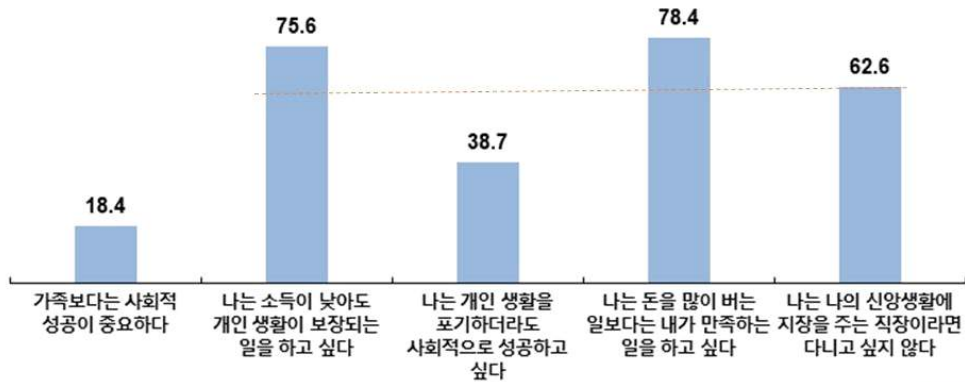
2. 개인 라이프 스타일

요즘 생활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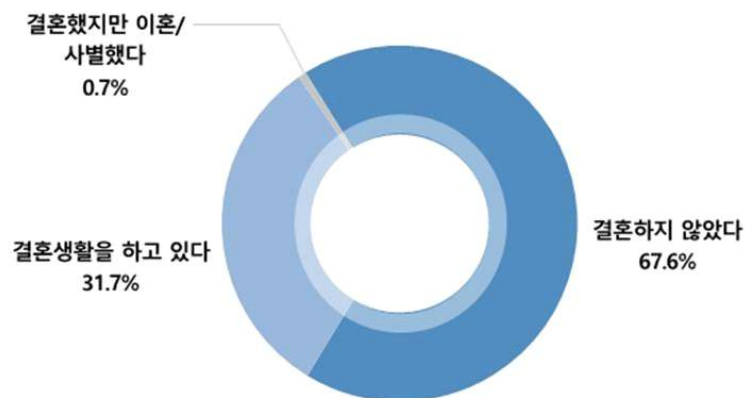
20대는 '안정적 일자리/취업'(33.8%)과 '학업/공부/성적/스펙쌓기'(23.7%), 그리고 '연애/결혼'(21.2%)을, 30대는 '경제적 여유'(53.6%), '주택/부동산'(26.7%), '건강/운동'(25.6%), 그리고 '자녀 양육'(19.7%)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경제수준 '상'층은 '경제적 여유'(43.9%)와 '주택/부동산'(29.3%) 같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건강/운동'(34.1%) 같은 자기 관리 등 관심사가 넓은데 비해, '하'층의 관심사는 '경제적 여유'(49.6%)와 '안정적 일자리/취업'(35.2%) 등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



신앙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층(92.1%)과 향후에도 충실한 기독교인(84.5%)은 신앙생활을 우선시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현재 가나안 성도(37.3%)와 향후에 탈기독교 의향을 밝힌 청년(20.0%)은 그 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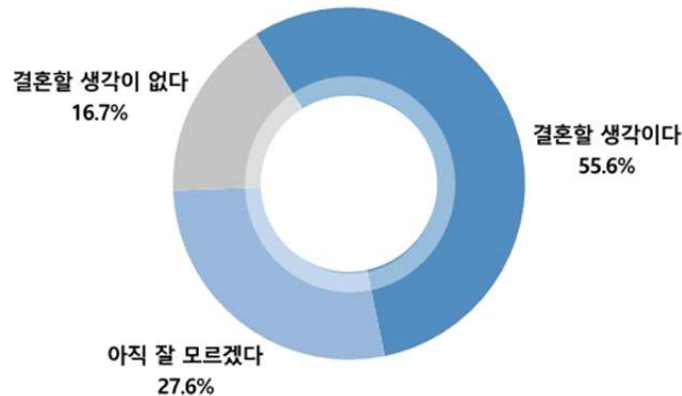
결혼 여부



결혼한 비율은 20대에서 9.8%였고, 30대에서도 50.7%로 절반만 결혼하였음. 부모 경제수준이 높으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상'층 74.3%, '중'층 65.2%, '하'층 67.9%), 본인 경제수준이 낮으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져('상'층 36.6%, '중'층 56.3%, '하'층 76.5%) 대조적이었음.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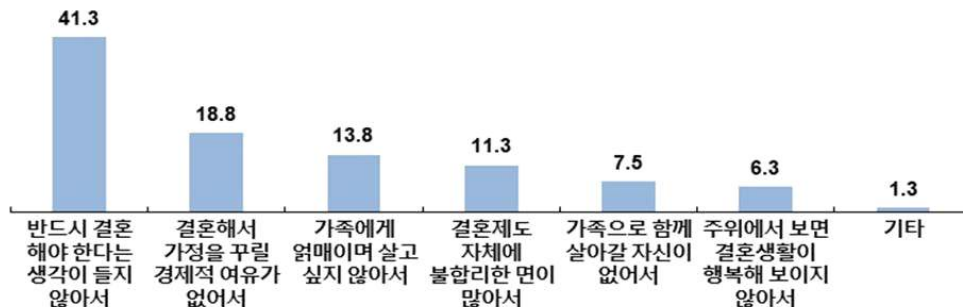
(Base=비혼 및 이혼/사별, N=478)



결혼 의사는 남성(61.0%)이 여성(51.0%)보다 높았으며, 부모 경제 수준과 본인 경제수준이 '중'층 이상인 청년이 '하'층보다 결혼 의사가 높았음. 신앙단계가 그리스도 중심층인 청년의 70.0%와 향후 충실한 기독 청년(64.6%)도 다른 응답자보다 결혼 의사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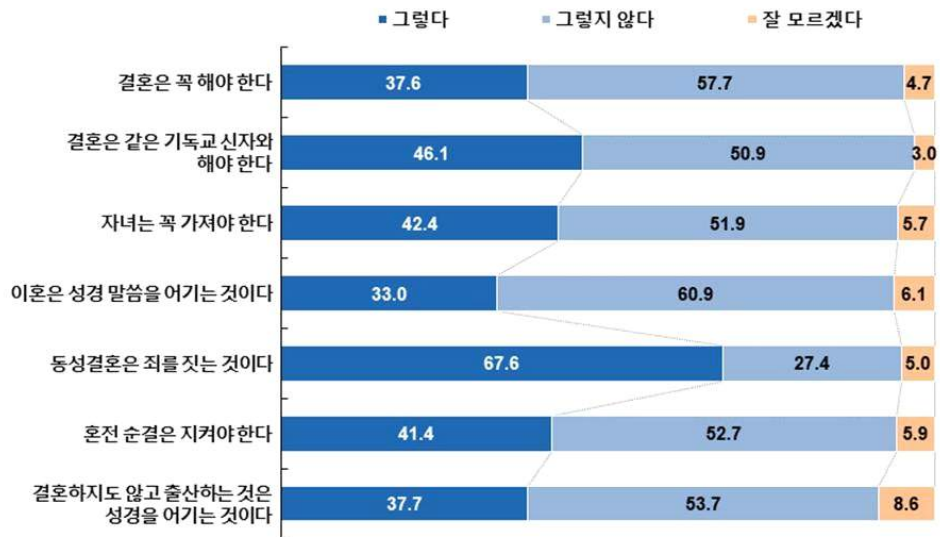
비혼 의향 이유

(Base=비혼 의향자, N=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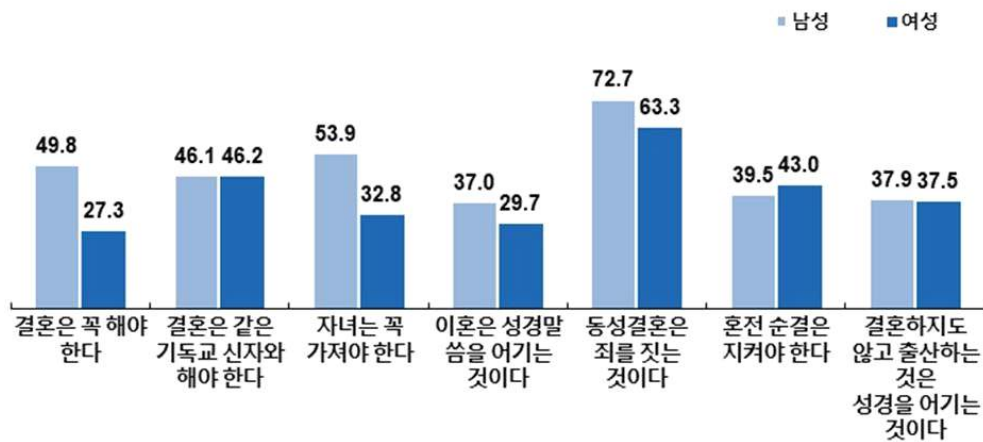


남성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4.0%)이었고, 여성은 사회문화적 요인(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50.9%, 결혼제도 자체에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14.5%)이었음. 또한 부모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부모 경제수준이 낮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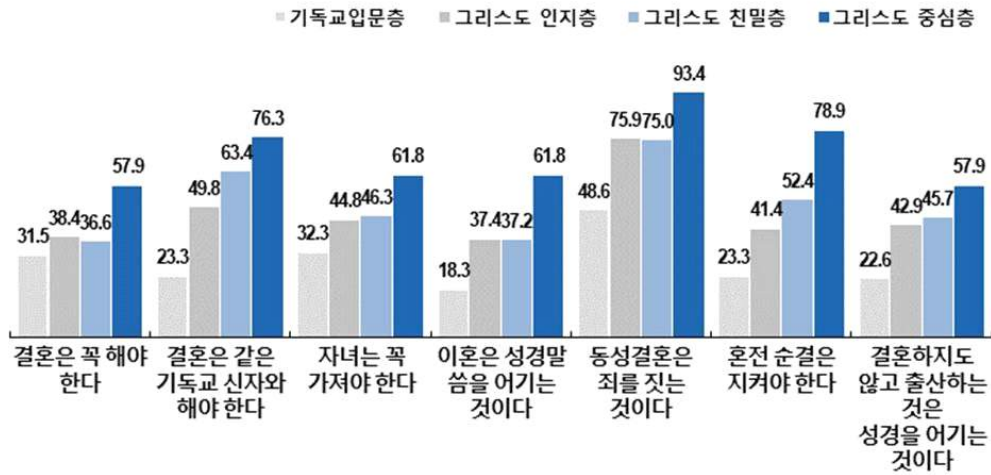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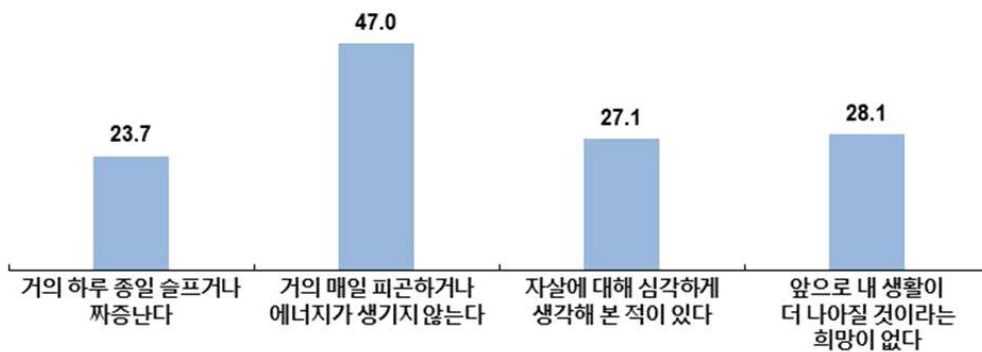
성별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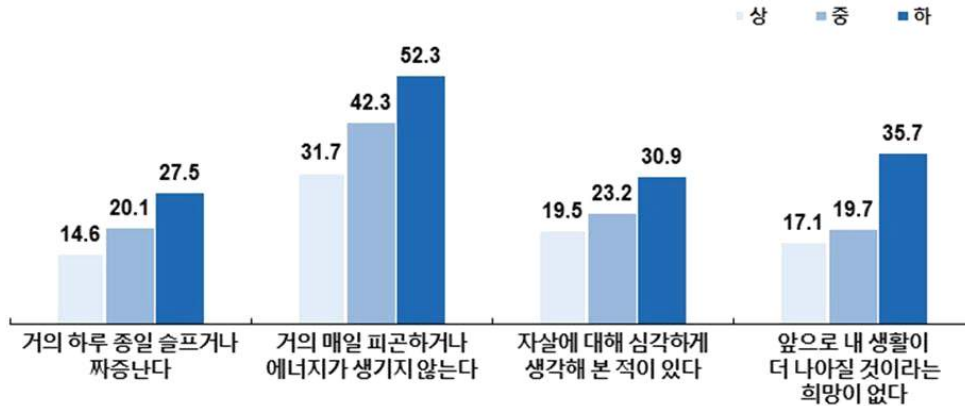
신앙단계별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평소 생활에서 심리 및 감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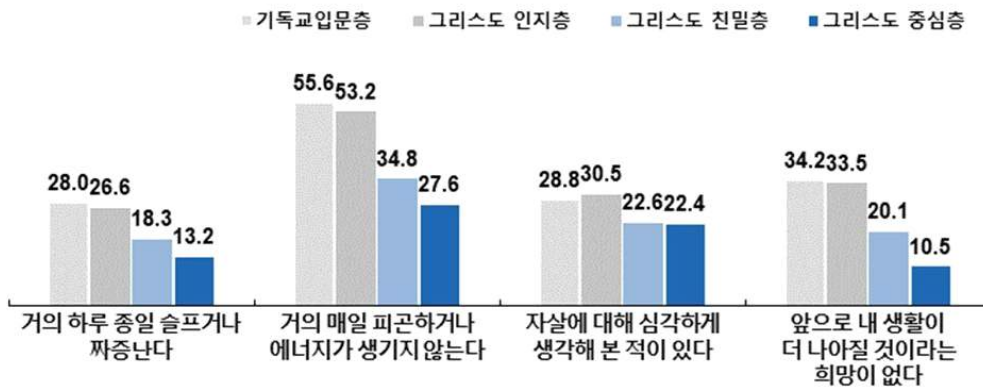


계층별 평소 생활에서 심리 및 감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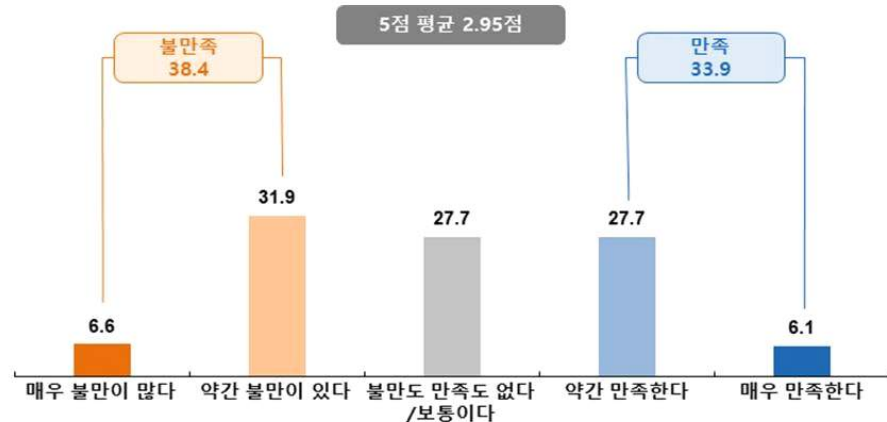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심리상태가 '우울 상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에 대해 '하'층이 동의하는 비율이 35.7%로 다른 응답자보다 확연하게 높아서 이들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신앙단계별 평소 생활에서 심리 및 감정 상태



신앙 단계가 높은 그리스도 중심층은 다른 응답자에 비해 특히 '무기력함'(27.6%)과 '미래 희망이 없음'(10.5%)에 대해 응답률이 낮아서 이들의 심리 및 감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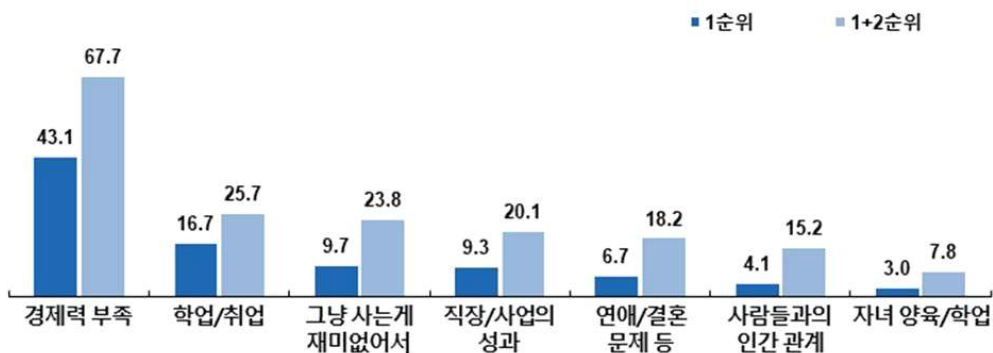
생활 만족도



경제수준으로 생활 만족도를 보면, '상'층이 63.4%, '중'층 44.7%, '하'층 22.4%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음. 교회 출석여부로 보면 교회출석자가 만족하는 비율이 35.5%로, 가나안성도 27.5%보다 높으며,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인 23.7%가 만족하는 데 비해 그리스도 중심층은 64.5%로서 큰 격차를 보임.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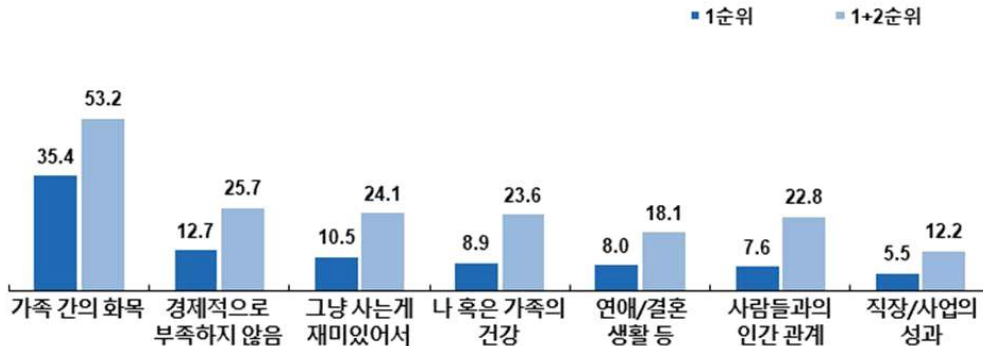
(Base=생활 불만족자, N=269)



1순위+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 '경제력 부족'은 30대(73.1%)와 본인 경제수준 '하'층(75.4%)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또한 '그냥 사는게 재미없어서'는 20대는 29.6%이고 30대는 17.9%여서 20대가 생활 의욕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임. '연애/결혼 문제'는 남성(22.7%)이 여성(13.9%)보다 더 큰 불만족 이유로 언급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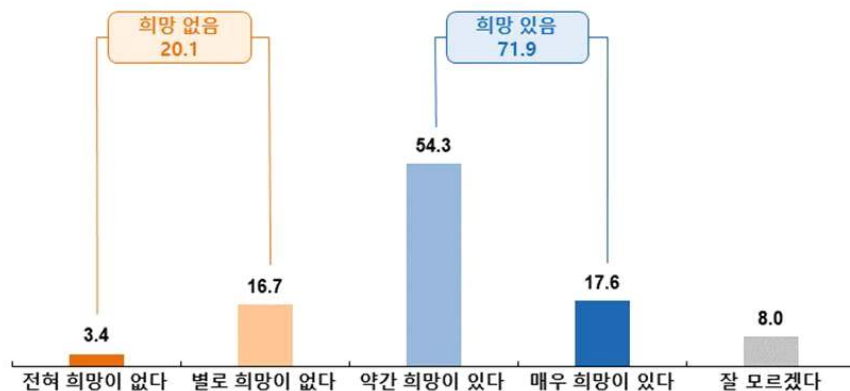
만족 이유

(Base=생활 만족자, N=237)



‘가족 간의 화목’은 여성이 57.0%, 남성이 48.0%가 응답해서 여성이 가족의 화목에서 생활의 만족을 더 많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30대(57.8%)와 기혼자(65.7%)와 본인 경제수준 ‘상’층(73.1%) 청년이 20대(47.1%)와 비혼자(44.9%) 그리고 ‘중’층(54.3%)과 ‘하’층(45.2%)보다 ‘가족 간의 화목’에서 만족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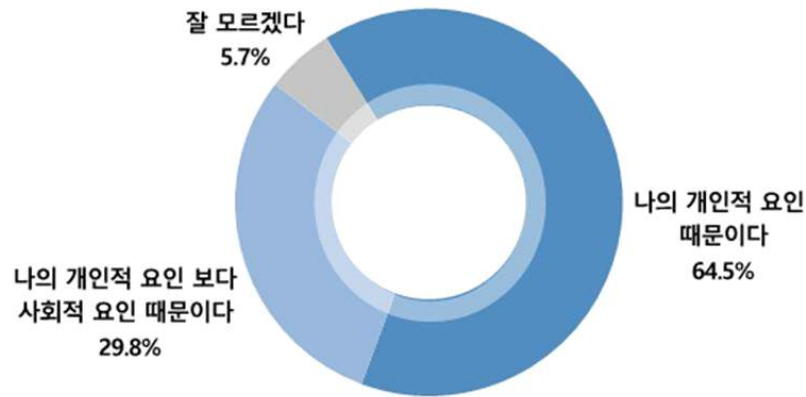
본인 미래 전망



‘희망이 있다’는 30대 74.4%로, 20대 68.9%보다 본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많이 갖고 있음. 또한 본인 경제수준이 올라갈수록 ‘희망이 있다’는 비율도 높아져서 ‘상’층에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인 90.2%가 ‘희망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하’층에서는 62.1%만이 ‘희망이 있다’고 해서 차이가 많았음. 또한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희망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은 66.5%였으나 그리스도 중심층은 85.5%로 크게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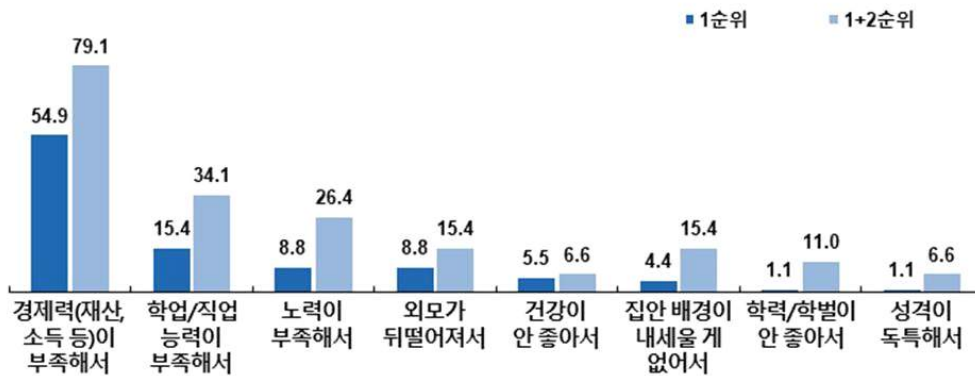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Base=미래 부정적 전망 응답자, N=141)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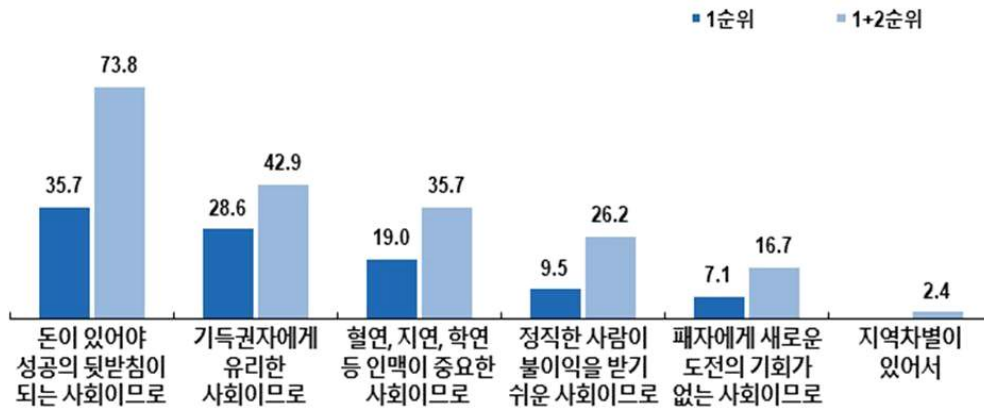
(Base=개인적 요인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 N=91)



1순위+2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 '경제력'은 30대는 87.5%가 응답하고 20대는 69.8%가 응답해서 30대가 경제력을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학업/직업 능력 부족'은 남성(26.1%)보다 여성(42.2%)이, '노력이 부족해서'는 30대(18.8%)보다 20대(34.9%)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했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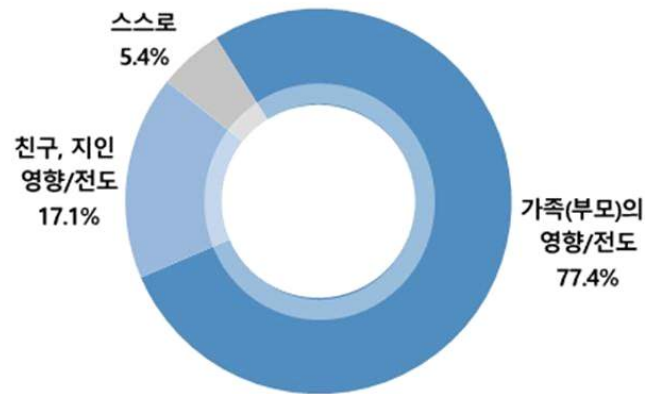
(Base=사회적 요인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자, N=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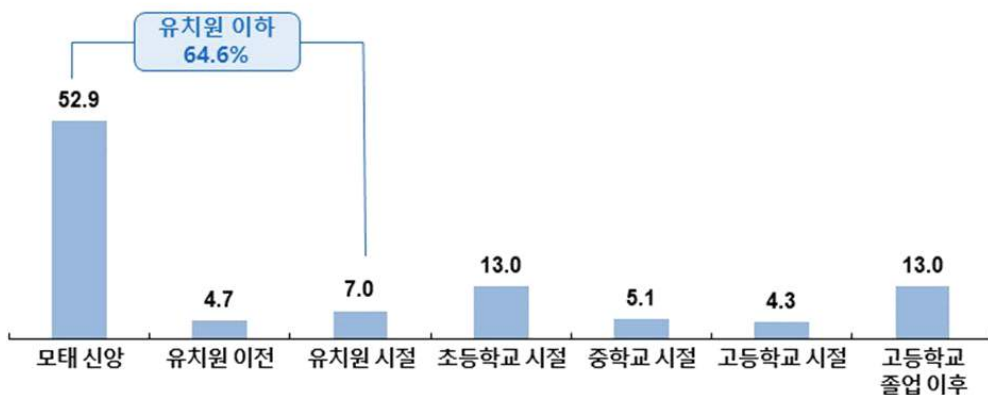
조사 결과

3. 신앙생활 및 신앙의식

신앙생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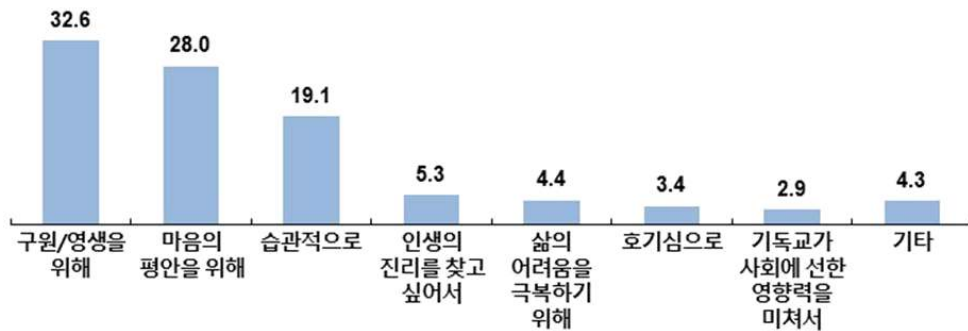


교회 출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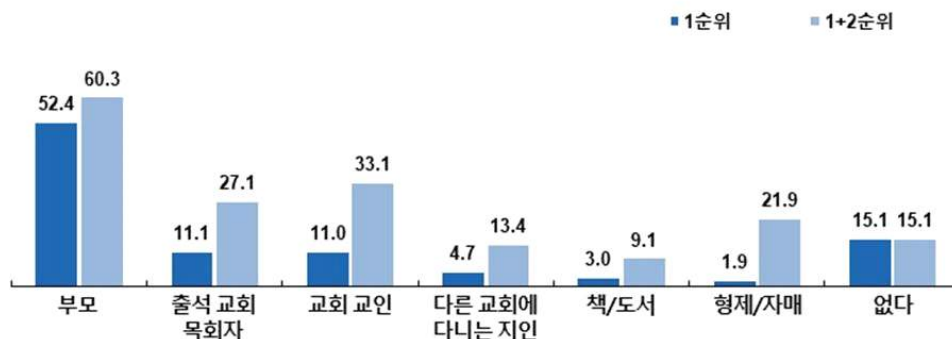
부모 경제 수준 '하'층의 49.1%, '상'층의 61.4%가 모태 신앙으로 부모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모태신앙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또한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모태신앙 비율이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은 47.1%, 그리스도 중심층은 59.2%로 나타났음.

신앙생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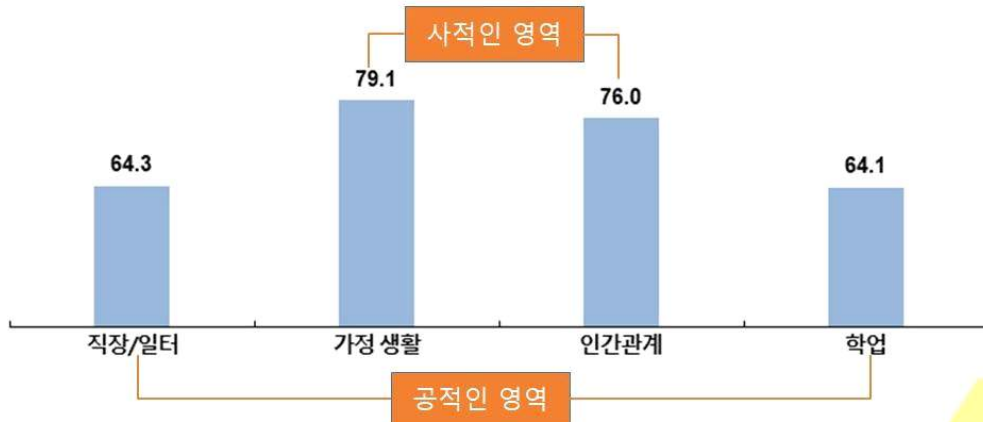
‘구원/영생을 위해’는 교회 출석자(35.7%)의 가장 큰 신앙생활 이유였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는 가나안성도(35.2%)에게서 가장 큰 이유였음. 또한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구원/영생을 위해’ 응답률이 높아져서 그리스도 중심층에서는 61.8%가 응답했고, 신앙 단계가 낮을수록 ‘습관적’ 이유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기독교 입문층에서는 33.1%가 응답했음.

본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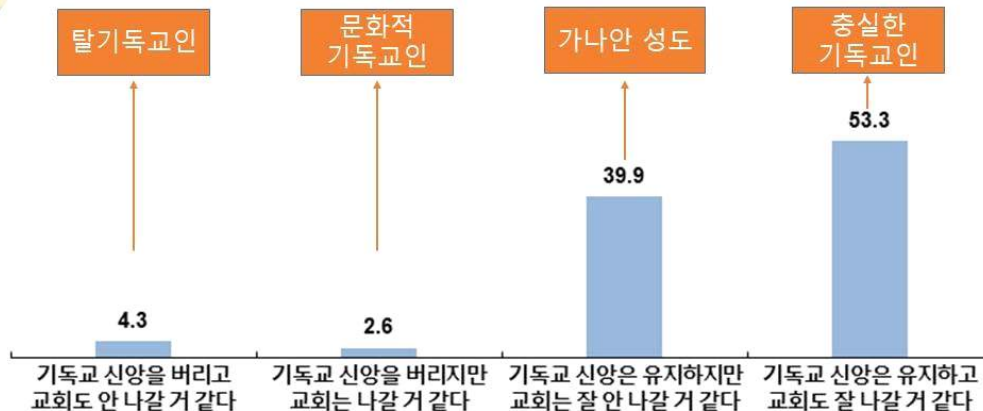
또한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출석 교회 목회자’의 영향력이 커져서 기독교 입문층은 14.0%만 응답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층은 42.1%가 응답해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신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앙이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일터'와 '학업'은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독교 신앙이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큰 차이 없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일터'와 '학업'은 신앙적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향후 신앙 및 교회 생활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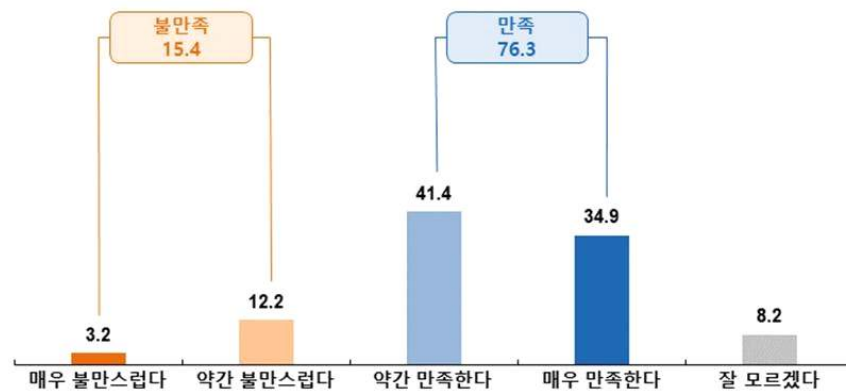
청년의 203%가 가나안성도인데 10년 후에는 약 19.6% 더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교회 출석자 가운데 64.0%는 여전히 '신앙은 유지하면서 교회도 잘 나갈 거 같다'고
 응답했고, '가나안성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29.6%였다. 반면 현재 가나안성도
 의 11.3%는 다시 교회에 출석할 거 같다고 예상하였고 계속 가나안성도가 되어 있을 것
 이라는 비율은 80.3%로 나타났음. 현재 가나안성도 가운데 7.7%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갈 거 같다'고 응답했음.

조사 결과

4. 교회생활 및 교회에 대한 인식

출석교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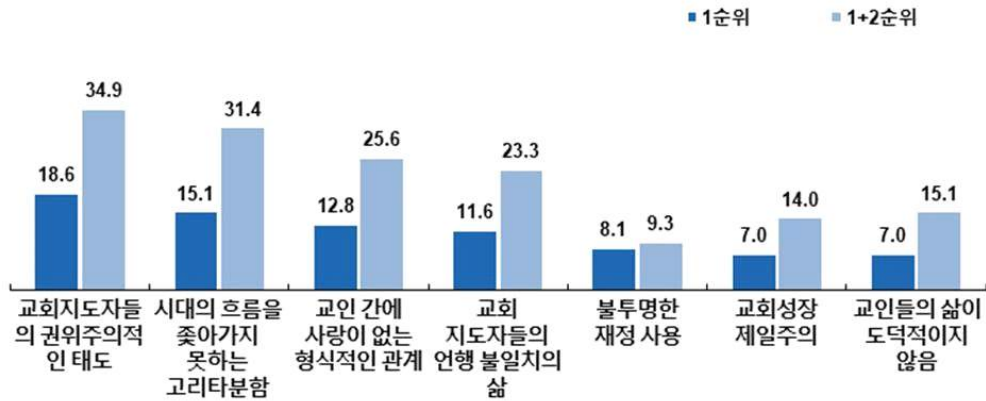
(Base=교회 출석자, N=558)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교회 만족도도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의 만족도는 62.7% 이고 그리스도 중심층은 거의 모든 응답자인 90.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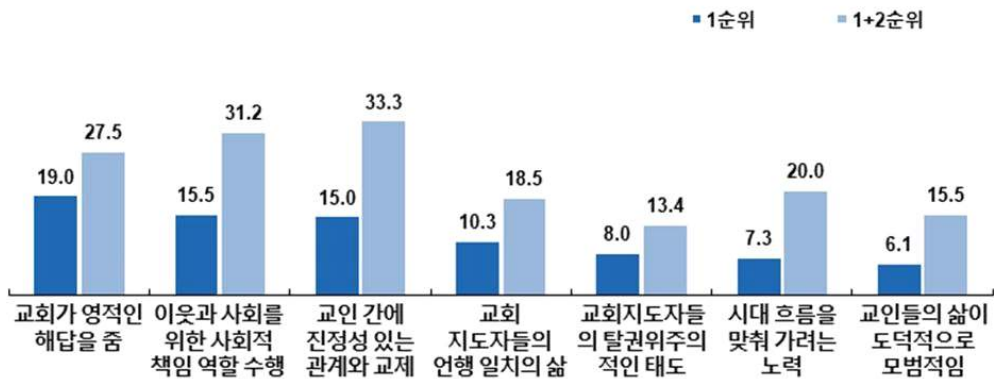
불만족 이유

(Base=출석 교회 불만족 응답자, N=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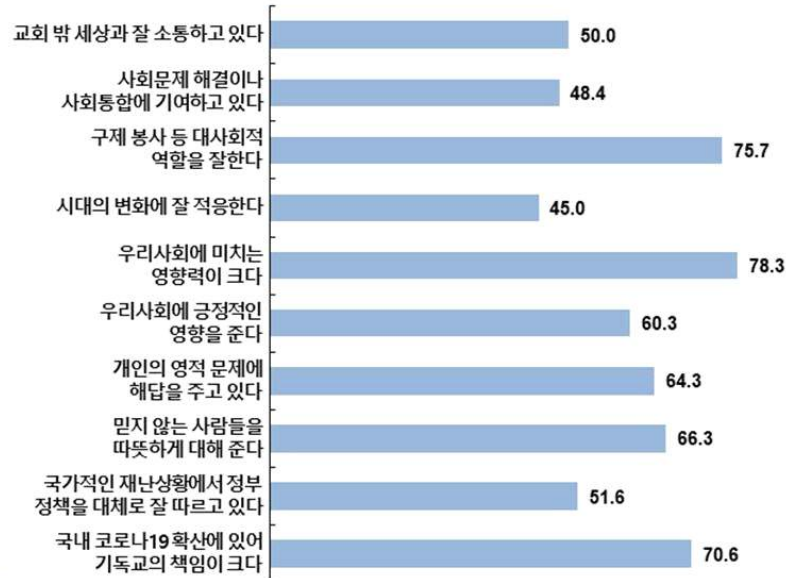
만족 이유

(Base=출석 교회 만족 응답자, N=4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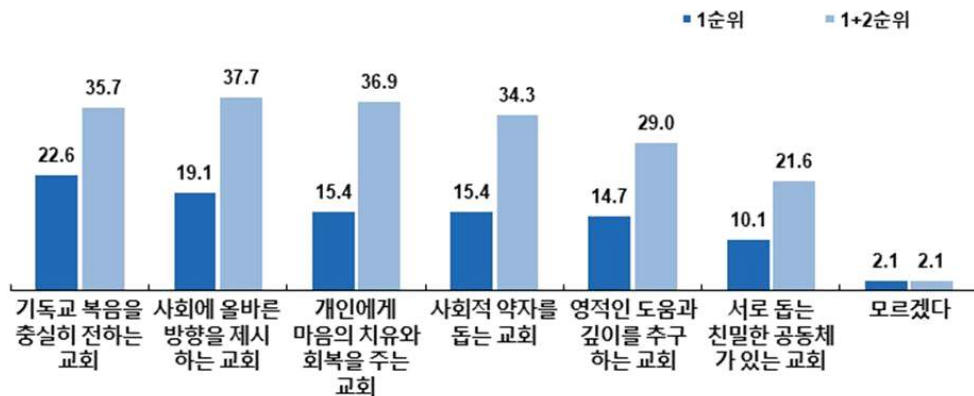


출석 교인 수 99명 이하의 소형 교회의 청년은 '교인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41.1%)를,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45.4%)을 가장 큰 만족 이유로 꼽음.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가 가능한 소형교회와 교회 인력과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대 사회적 사역을 할 여력 있는 대형교회의 특징에 따른 결과로 보임.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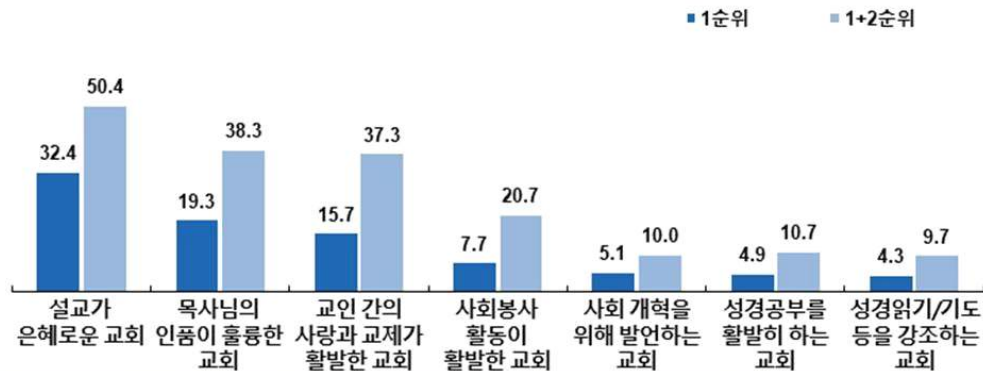


바람직한 한국교회 미래상



중형과 소형 교회 출석 청년은 '치유적 교회'를 많이 원하고 있으며, 대형교회 출석 청년은 '복음적 교회'(43.5%)를 가장 많이 원해서 출석교회 규모에 따라 꿈꾸는 교회상에서 차이가 있음. 신앙단계가 가장 높은 그리스도 중심층은 '복음적 교회'(59.2%)와 '영성적 교회'(52.6%)를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기독교 입문층은 '치유적 교회'(42.8%)와 '섬김의 교회'(42.8%)를 한국 교회의 미래상으로 원하고 있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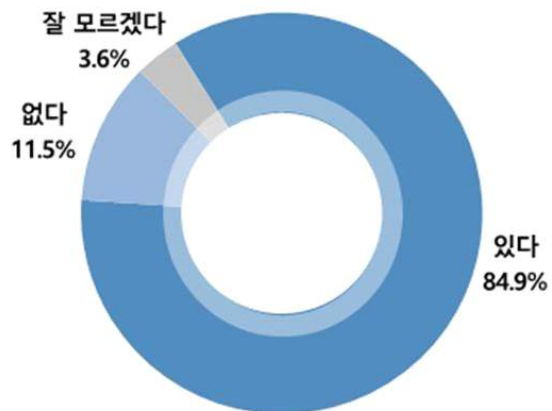


남성은 “교인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41.7%)를 가장 선호했는데, 여성은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63.3%)를 가장 많이 선호했음. 20대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42.8%)만큼이나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41.5%)를 원하고 있는데 30대는 단연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57.1%)를 원하는 경향이 강했음. 교회 출석자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49.3%)가 가장 많았으나 가나안 성도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42.8%)와 함께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51.4%)를 선호했음.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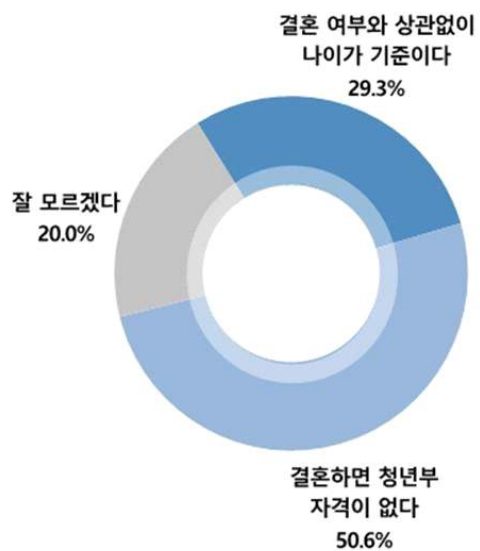
5. 청년부에 대한 인식

청년부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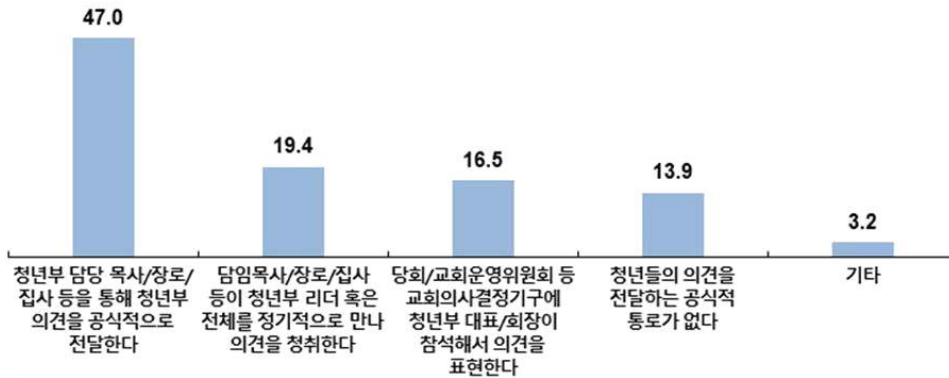
출석교회 규모로 보면, 대형교회(1000명 이상 출석)는 98.3%가 청년부가 있다고 했고, 중형교회(100~999명)도 90.9%가 청년부가 있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소형교회(99명 이하)는 59.7%만이 청년부가 있다고 응답했음.

청년부 자격 조건



청년의 교회의사결정구조 참여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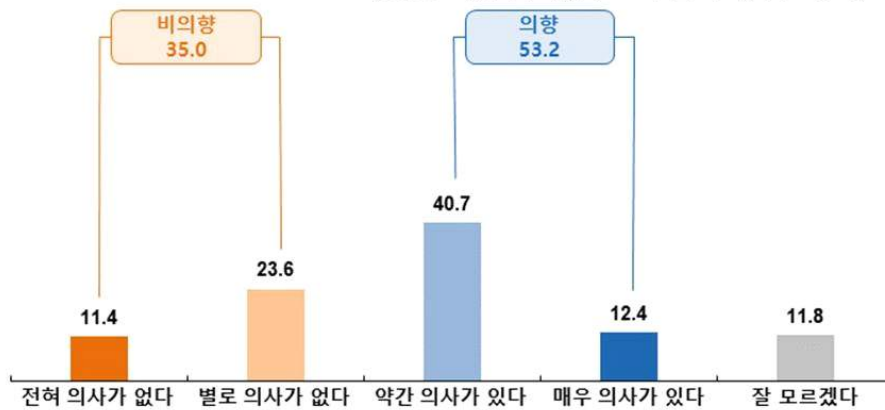
(Base=청년부 있는 교회 출석자, N=474)



대형교회는 '청년부 담당 목사/장로/집사를 통해 전달'한다는 응답이 52.9%로 중형교회(44.5%)나 소형 교회(41.6%)보다 높고, '담임목사/장로/집사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소형교회는 24.7%, 중형교회는 19.9%, 대형교회는 16.1%로 소형교회가 더 높았음. 교회 규모가 클수록 교회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부 참여가 멀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청년의 교회의사결정구조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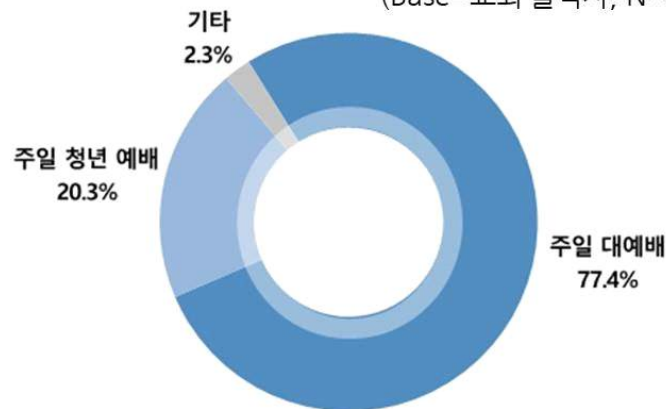
(Base=청년부 있는 교회 출석자, N=474)



소형교회 출석 청년은 64.0%가 참여 의향을 밝혀서 각각 51.7%와 49.4%가 참여 의향을 밝힌 중형교회와 대형교회보다 참여 의향이 더 높았음. 또한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참여 의향이 70.5%로 다른 응답자보다 더 높았음.

주로 참석하는 주일 예배

(Base=교회 출석자, N=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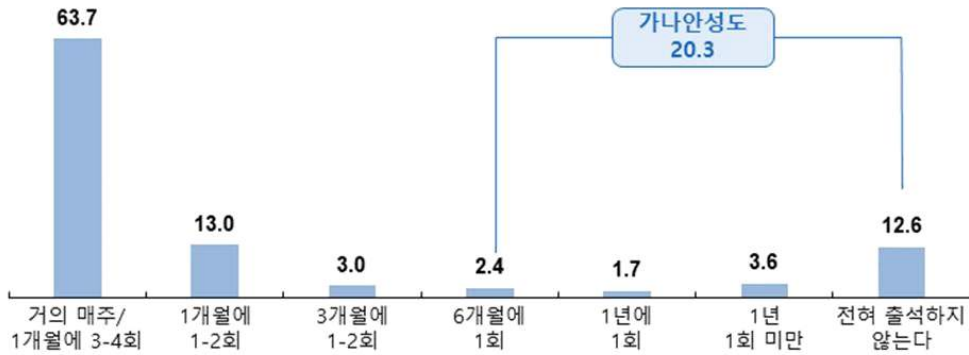
'주일청년예배'를 참석한다는 비율이 20대는 29.0%, 30대는 12.5%로 20대가 2배 이상 더 높았음. 기혼자는 92.9%가 주일대예배를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는 청년부 자격이 결혼 여부로 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조사 결과

6. 가나안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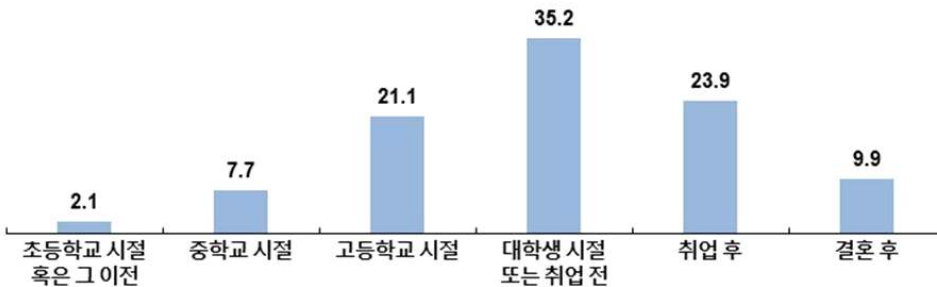
(Base=가나안 성도, N=142, %)

가나안 성도 비율



가나안성도 비율은 남성 16.0%, 여성 23.9%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20대는 19.4%이고 30대는 21.1%였음. 부모나 본인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가나안성도 비율이 높아졌음. 부모 경제수준이 '상'층에서 17.8%이고 '중'층에서는 17.1%였는데 '하'층에서는 24.9%. 또한 본인 경제수준이 '상'층에서는 12.2%였는데 '중'층에서는 21.1%이고 '하'층에서는 20.5%로 더 높았음. 신앙단계로 보면 기독교 입문층에서 가나안성도 비율이 38.5%로 높았는데, 그리스도 친밀층에서 13.4%였음.

교회 떠난 시기



20대는 '대학생 시절 또는 취업 전'이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시절'(31.7%)이었는데, 30대는 '취업 후'(31.6%)가 '대학생 시절 또는 취업 전'(30.4%)과 더불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음. 30대는 결혼 후에도 16.5%가 가나안성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도 중요한 계기로 드러났음.

교회 불출석 기간



2018년 가나안성도 조사와 비교하면

'5년 이하'는 2018년 64.5% → 2021년 40.8%로 줄었고,

'6~10년'은 2018년 25.5% → 2021년 36.6%로 늘어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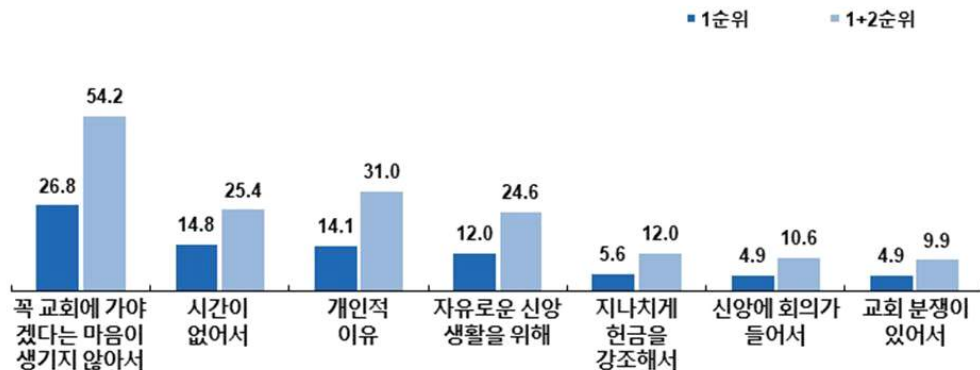
'11~15년'이 2018년 6.2% → 2021년 12.7%로,

'16년 이상'이 2018년 3.8% → 2021년 9.9%로 늘어났음.

이 결과로 보면 가나안 청년의 새로운 유입이 준 것으로 보임.

가나안교인이 된 평균 기간도 2018년에는 5.03년이었으나 2021년에는 7.9년으로 늘어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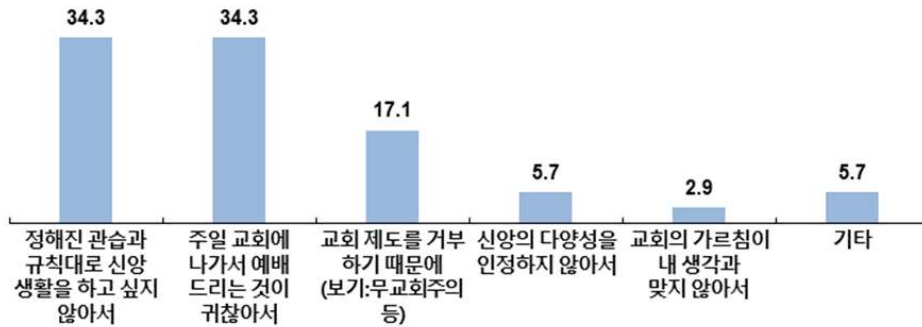
불출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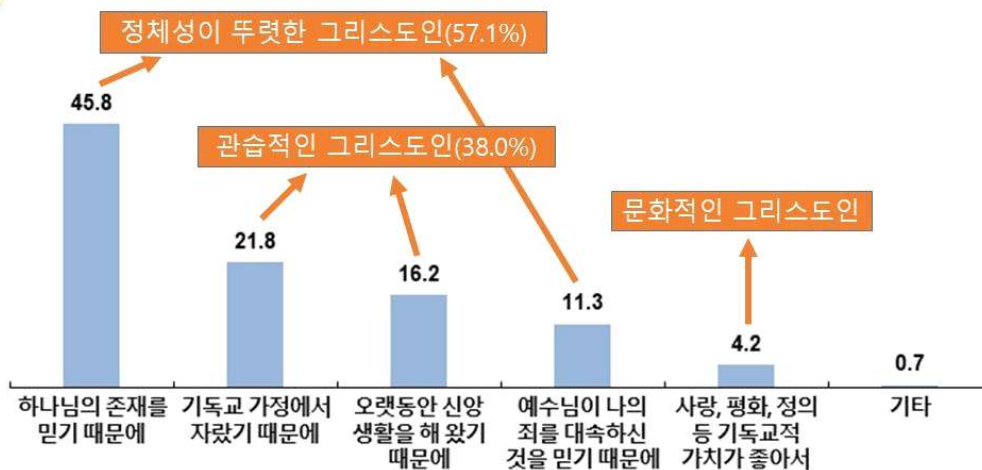
'교회출석 욕구 부재'는 여성이 58.2%, 남성이 47.1%가 응답을 해서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였고, '개인적 이유'는 남성이 39.2%, 여성이 26.4%로 남성에게서 더 큰 이유였음. '시간이 없어서'는 20대가 36.5%, 30대는 16.5%로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의미

(Base=‘자유로운 신앙생활’ 이유로 가나안 성도가 된 응답자, N=35)



기독교인 정체성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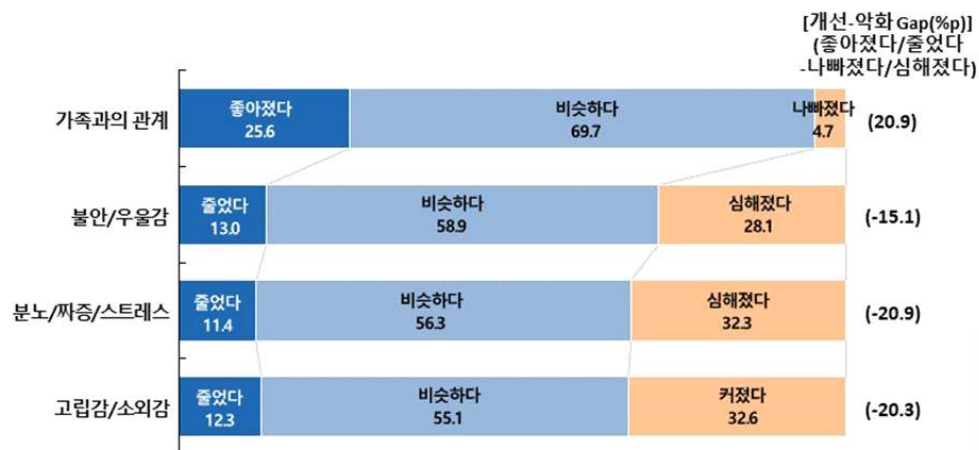


습관적 신앙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근거로 삼는 경향이 20대에서 더 높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는 20대에서 1.6% 밖에 응답하지 않아서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나안성도 비율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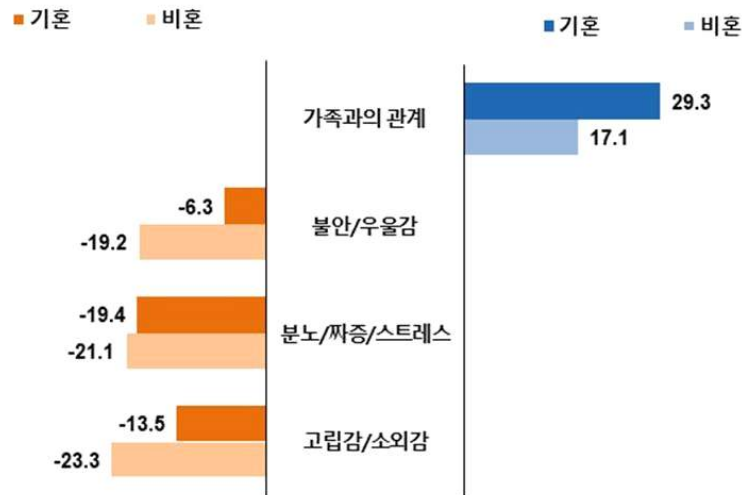
조사 결과

7.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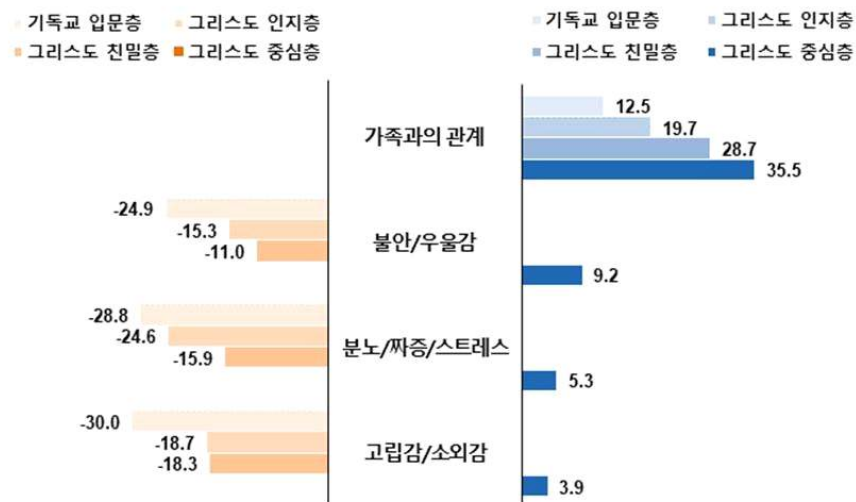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심리상태 변화



혼인상태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심리상태 변화[개선-악화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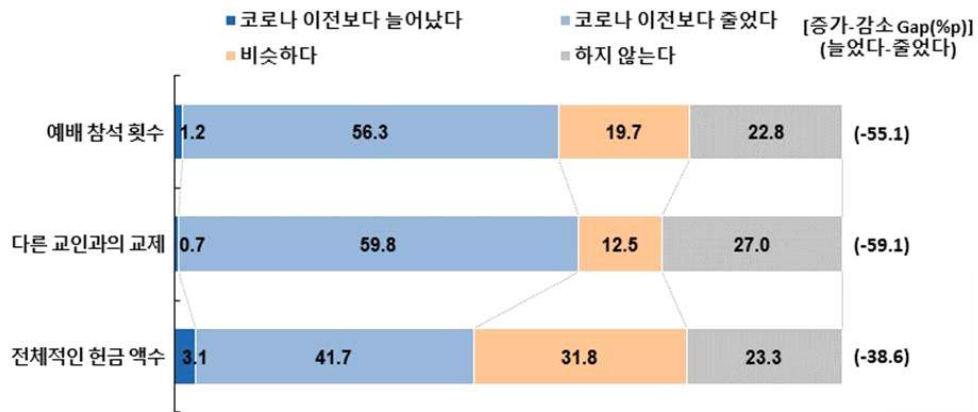


신앙단계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심리상태 변화[개선-악화 Gap]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회 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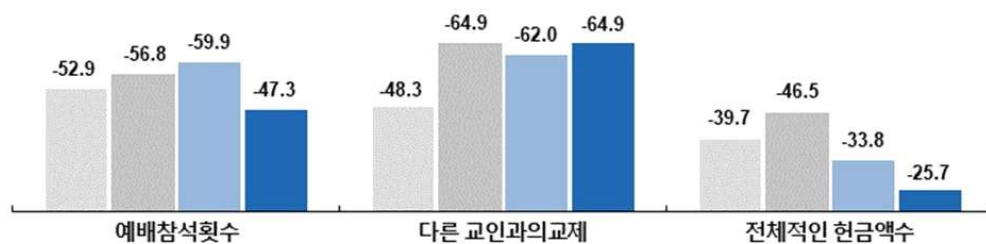
(Base=교회 출석자, N=575)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회 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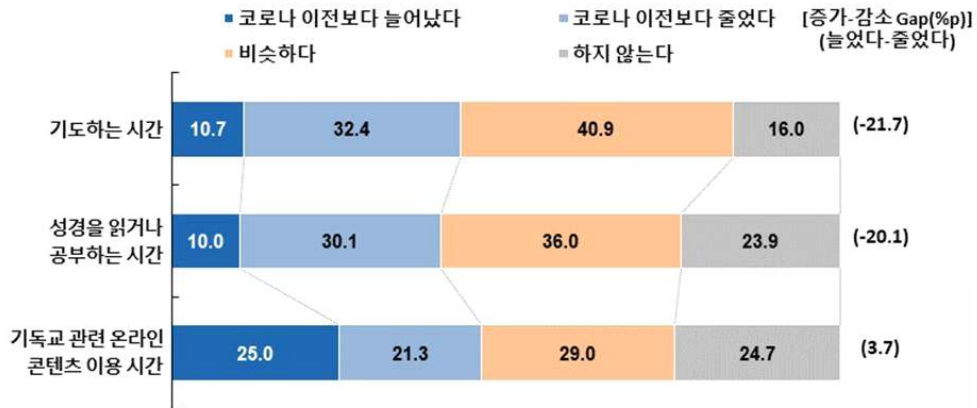
(Base=교회 출석자, 575) N=575, %

■ 기독교 입문층 ■ 그리스도 인지층 ■ 그리스도 친밀층 ■ 그리스도 중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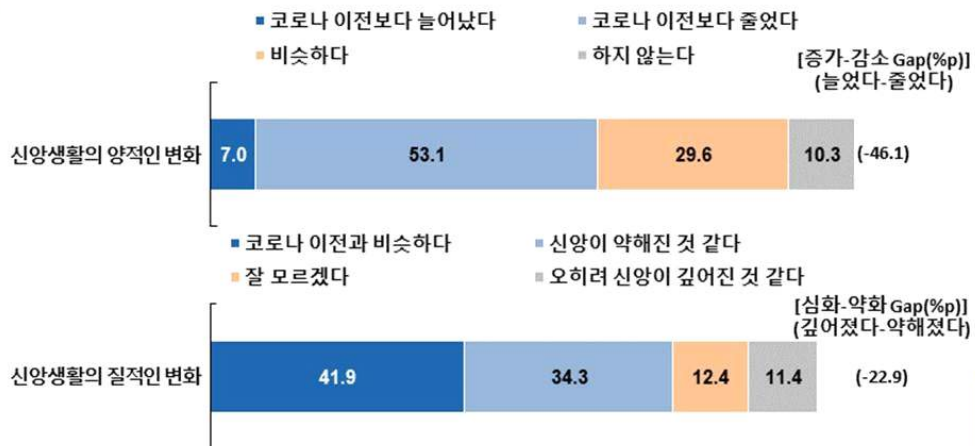


그리스도 중심층에서 증가했다는 응답률과 감소했다는 응답률의 차이가 가장 컸다. 즉, 교회 생활의 위축이 가장 컸었던 집단이 그리스도 중심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기독교 입문층도 감소 폭이 컸었는데, 이는 기독교 입문층의 교회 생활이 원래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회 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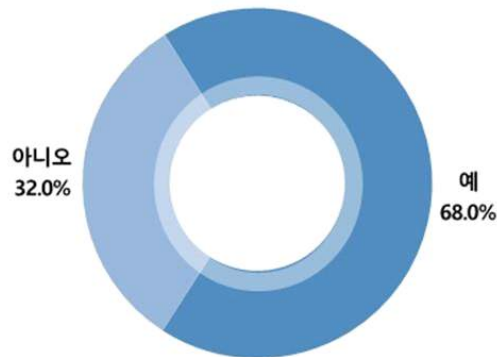


신앙수준의 변화



두 경우 모두 가나안성도의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적었음. 이것은 가나안성도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앙생활이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나안성도는 이미 개인적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감소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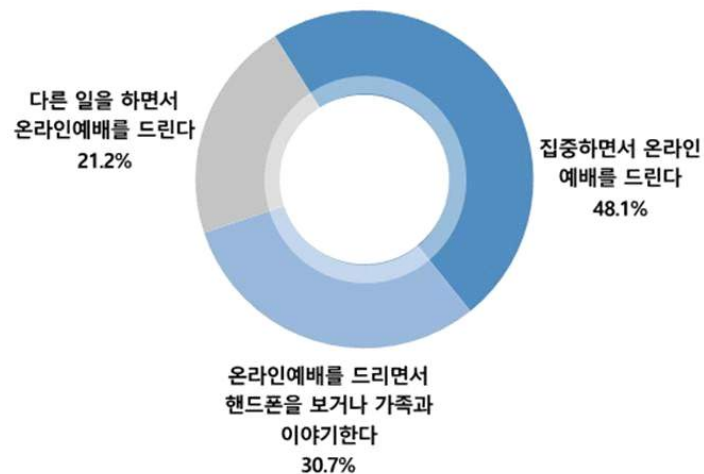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온라인예배 드린 경험도 높아져서 기독교 입문층의 온라인예배 경험률은 42.8%였으나 그리스도 중심층은 90.8%로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예배를 드렸음. 또한 부모 경제 수준이 '상'층인 청년은 72.3%, '하'층은 64.3%로 부모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예배 경험률도 높아졌음. 그리고 대형교회 청년의 온라인 예배 경험률이 90.4%로 거의 모든 청년이 온라인예배를 드렸지만, 소형교회 청년은 66.4%밖에 온라인예배를 드리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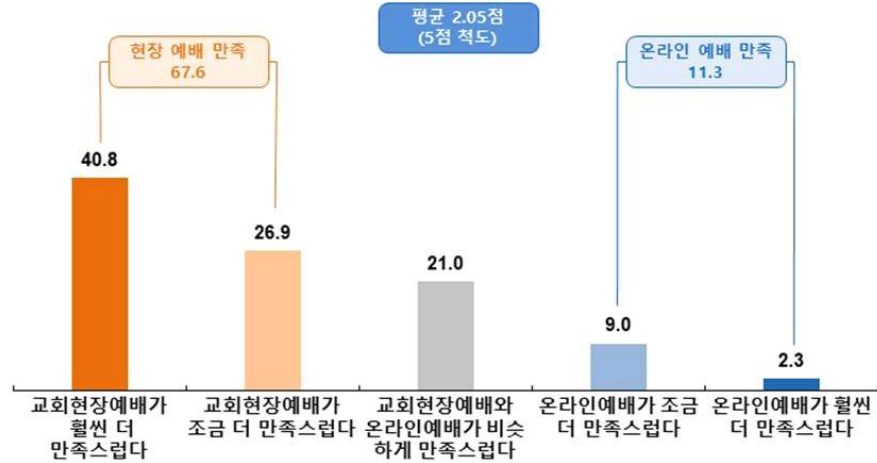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 드린 자세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476)



온라인예배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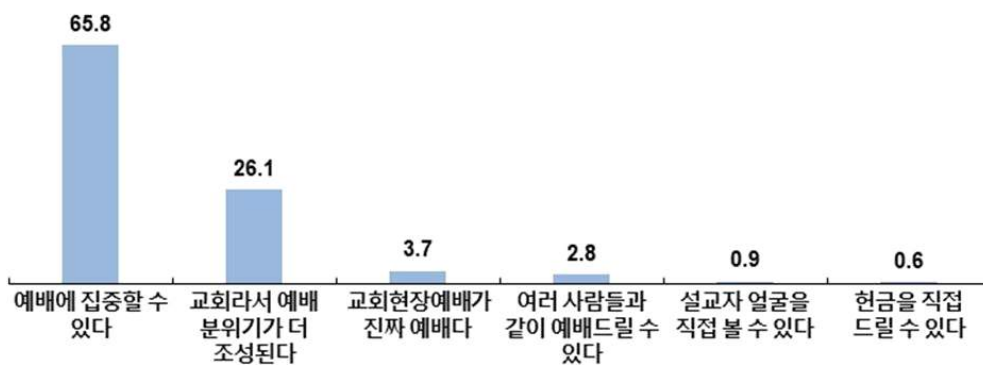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476)



대형교회에서는 현장예배를 만족하는 비율이 76.3%로 중형이나 소형 교회보다 10%p 정도 높았음. 신앙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층의 현장예배 만족도가 79.7%로 다른 응답자보다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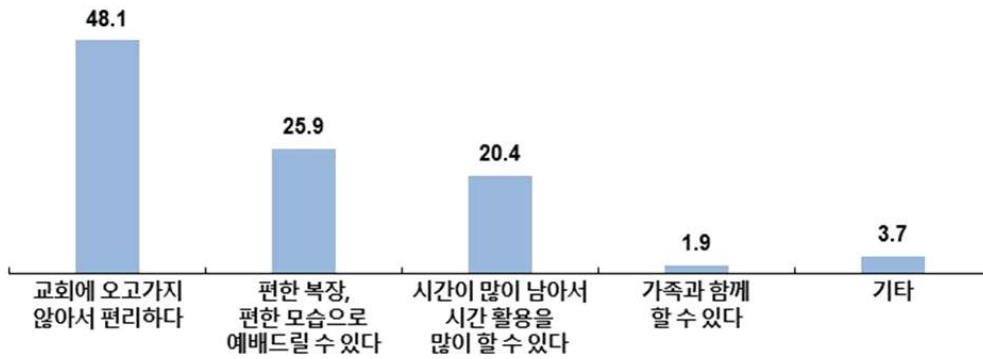
현장 예배 만족 이유

(Base=현장 예배 만족 응답자, N=3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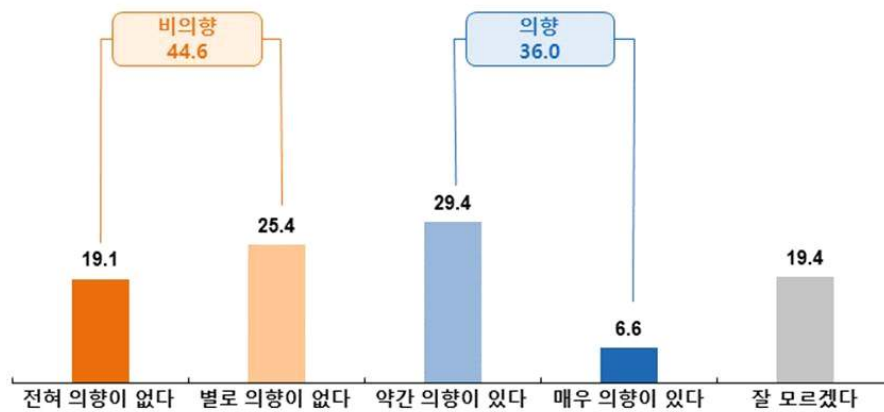


온라인예배 만족 이유

(Base=온라인 예배 만족 응답자, N=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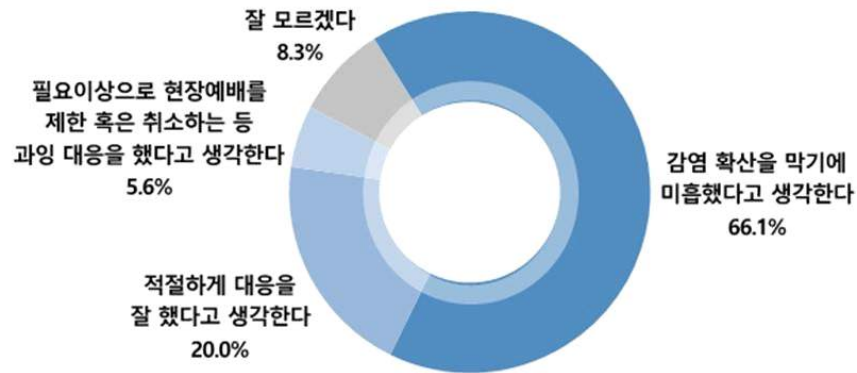


온라인교회 참여 의향



남성이 온라인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29.8%로 여성은 41.2%보다 높았음.
가나안성도는 40.1%로 교회출석자 34.9%보다 약간 높았음. 그리고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온라인교회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기독교 입문층 37.7%, 그리스도 중심층 64.5%)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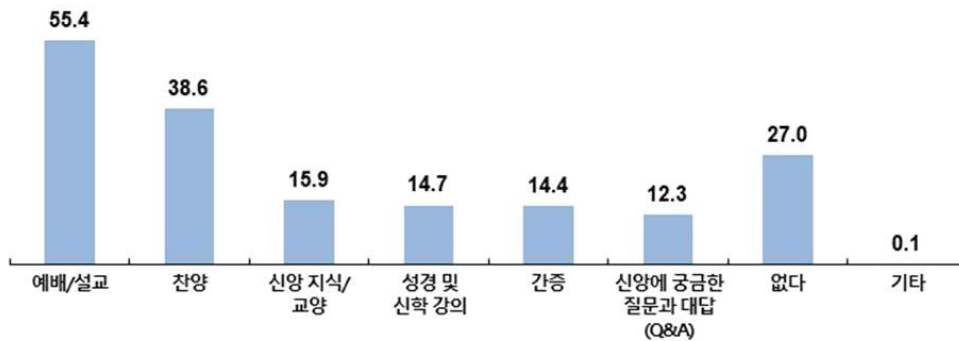


소형 교회(65.8%)와 중형교회(65.9%)는 대형교회(57.1%)보다 '미흡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형교회는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적절했다'는 평가가 높았는데, 기독교 입문층은 '미흡했다' 79.0%, 그리스도 중심층은 '미흡했다' 46.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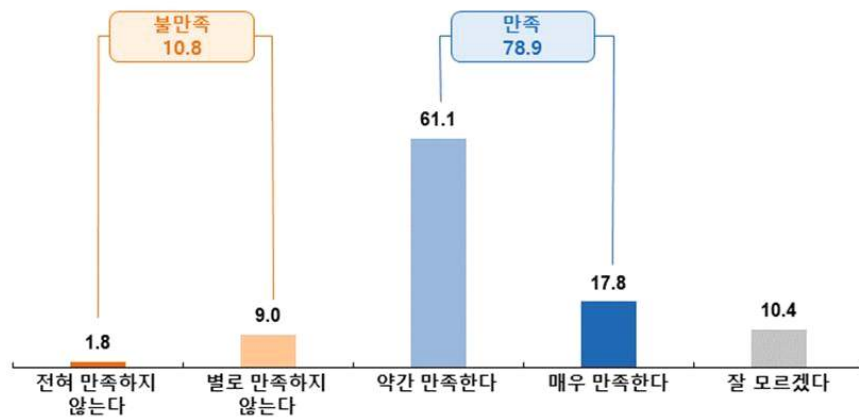
8. 온라인 활동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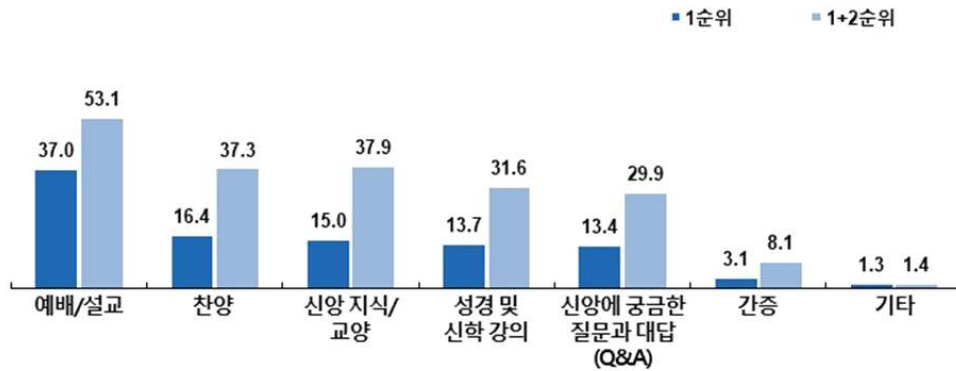
대형교회 청년의 70.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소형교회는 54.4%가 경험 있다고 응답했음. '찬양'은 여성이 42.5%, 남성 33.9%보다 많이 이용했음. 또한 신앙단계가 높은 그리스도 중심층이 예배/설교 78.9%, 찬양 61.8%로 다른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예배/설교'와 '찬양' 콘텐츠 이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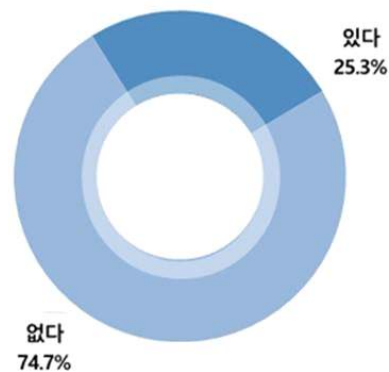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성(75.0%)보다 여자(82.1%), 20대(75.5%)보다 30대(82.0%), 가나안성도(67.9%)보다 교회 출석자(80.2%), 그리고 기독교 입문층(62.8%)과 그리스도 인지층(78.45)보다 그리스도 친밀층(89.1%)과 그리스도 중심층(91.4%)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희망 장르



1순위+2순위 응답 기준으로 '예배/설교'는 30대가 20대보다 높았고, '신앙지식/교양'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희망했으며, 교회 출석자가 가나안성도보다 원하는 비율이 높았음.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신앙지식/교양' 장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찬양'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가나안성도들은 성경 및 신학 강의, 신앙에 궁금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응답이 약간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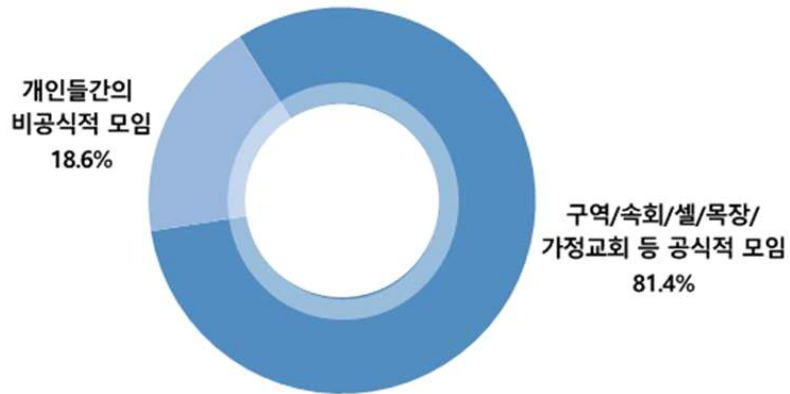
줌/온라인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신앙관련 모임 경험



출석교회 규모가 클수록 '줌' 등의 온라인 미팅 이용률이 높았고,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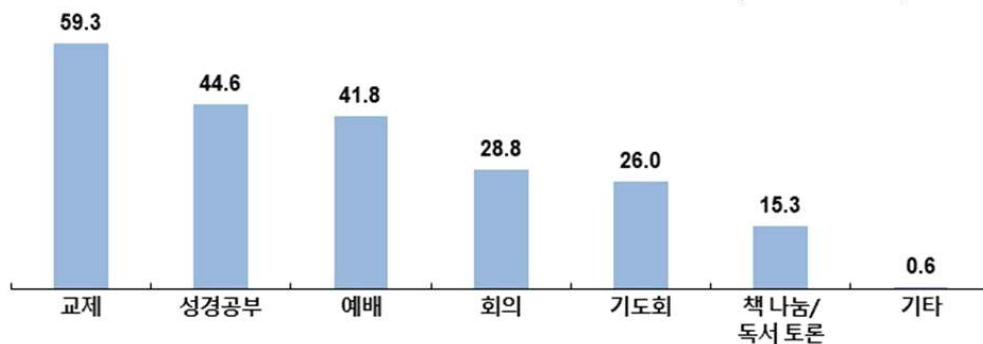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모임 형태

(Base=경험자, N=177)



모임의 구체적 활동(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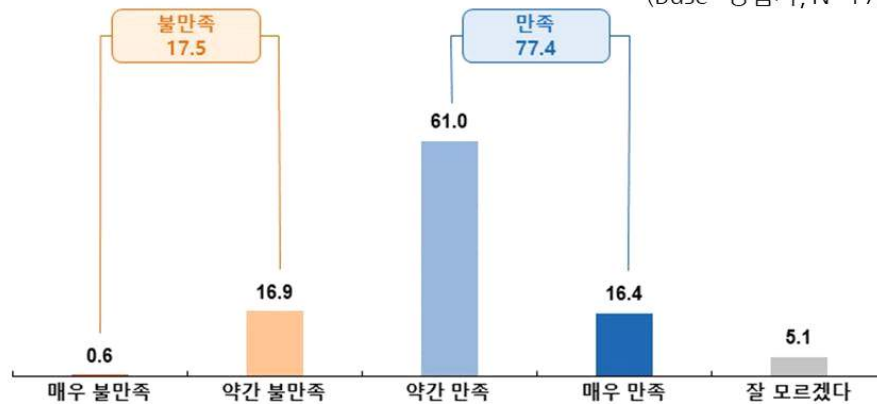
(Base=경험자, N=177)



남성은 '교제'와 '예배'를 가장 많이 했는데, 여성은 '교제'와 '성경공부'를 많이 했음. 소형교회는 '예배'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중형교회와 대형교회는 '교제'를 많이 이용했는데, 특히 대형교회 청년의 '교제' 비율이 가장 높았음. 기독교 입문층은 '교제' 외에 '성경공부'도 줌을 통해 이용한 경험이 다른 응답자보다 높아서 코로나19 동안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 혹은 성경공부가 '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시간 미팅 앱을 이용한 모임 만족도

(Base=경험자, N=177)



소형교회 청년의 만족도가 90.9%로 매우 높았으며 중형교회는 73.9%, 대형교회는 74.3%였음. 신앙단계로는 그리스도 친밀층(88.1%)과 그리스도 중심층(83.9%)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결론 및 제언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에 대한 관심 필요

-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서 3분의 1이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 경제 양극화, 부동산 등 주로 경제 문제를 크게 보고 있었음.
-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낮으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했음.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고, 결혼 의향도 낮게 나옴. 비혼 이유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함.
- 또한 성경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데에도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이 더 많이 동의해서 성경대로는 사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경제 수준이 낮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가족종교화에 대한 우려

- 2019년 청소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독 청년들도 모태신앙이 절반이 넘었고, 유치원 이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이 65%정도 되어서 기독교가 가족종교화 되는 경향을 보였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기독 청년들의 77.4%는 '가족(부모)의 영향/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부모가 가장 컸음.
- 이러한 결과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잘 정착하여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생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함.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자칫 끼리끼리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도 나타내고 있음.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 약화 우려


-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은 대체로 양적,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심리 상태도 더 나빠지고 있음.
- 교회에 대한 평가 9개 항목에 대부분 50~60% 정도만 동의함. 특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에 대해 절반만 동의했고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독 교 청년들은 교회의 코로나19 상황 대처에 대해 비교적 낮게 평가를 한 것이다.
-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거 같다'는 응답은 절반에 불과하였고, 기독 청년의 40% 정도는 10년 후에는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을 비추었고 4%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고 응답했음.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필요

- 기독 청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온라인 콘텐츠 만족도가 높았음. 온라인 콘텐츠 경험은 주로 설교와 찬양이었지만 희망하는 콘텐츠는 훨씬 더 다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실시간 미팅 앱 사용 경험은 많지 않았으나 만족도는 온라인 콘텐츠만큼 높았고, 공식 모임 외에도 다양한 비공식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소형교회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소형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신앙단계가 높은 청년들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고, 코로나로 인한 타격도 덜 받고 있으며 신앙생활 유지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청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음.
 - 교회 안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교회 밖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경제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경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협동조합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2021
기독교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Part2

코로나19, 청년, 기독교(2):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 시대와 청년 신앙: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송인규 소장(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의 사역 전반에 걸쳐 당황과 좌절의 분위기를 초래했다. 대면 방식을 교회 활동의 표준과 정상으로 여겨 온 사역자들과 교우들은, 난생 처음 겪는 비대면의 현실을 차분하고 의미 있게 소화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장소로부터 신체적으로 배제된 채 뿔뿔히 흩어져 드리는 영상 예배가 그렸고,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어색히 만나는 구역(목장) 모임과 교제가 그렸다. 불만과 아쉬움의 표정, 한숨과 탄식의 반응이 염려스러운 것은, 꽤 많은 이들의 추측처럼 코로나 사태가 교우들의 신앙 생활을 급격히 유명무실화하고 한국 교회(특히 개신교)의 위축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길한 조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걸림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것은 청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청년들의 신앙은, 적어도 외적 표지에 의거해 평가할 때 좀더 퇴보하거나 약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조사 [VII, 2~4]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참석 횟수는 55.1%, 다른 교인과의 교제는 59.1%나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눈에 띄는 진보나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난 청년은 10% 정도였지만, 줄어든 청년은 3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앙 수준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11.4%는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34.3%는 반대로 약해진 것 같다고 함으로써 약화된 이들이 22.9%나 높았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신앙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걸림돌 타령이 바람직한 태도인가? 결국 코로나 사태는 청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걸림돌로만 작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발제자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할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태도 변화와 진취적 기상에 따라 코로나 사태는 부분적으로나마 청년 신앙을 위한 디딤돌 노릇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디딤돌로 전향되기 위해서는 두 방면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는 청년 개개인을 겨냥한 노력이요, 또 하나는 청년 공동체 사역과 연관된 노력이다.

I. 코로나 사태: 청년들의 신앙적 질문에 응수하기

(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질문

설문 조사의 문항(II의 1) 가운데 “요즘 생활 관심사”가 있는데, 비록 순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6순위에 보면 “종교(구원)”가 있다. 이 관심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이든 세대에 비해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 발생 후에는 종교적 관심의 초점이 아마도 “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가? 코로나 사태가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에 답함으로써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걸림돌로만 여겨졌던 코로나 사태는 어느새 디딤돌로서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수준에서의 답변이 가능하다.

(i) 인류 전체의 수준.

제일 먼저 인류 전체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 코로나 사태는 무엇보다도, 인류가 자연 세계에 대해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윤리학자는 인류의 자연 착취 실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말미암아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직접적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 차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기후체계가 급변하면서 동물의 면역체계가 교란되고, 병원체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데에도 원인이 있다. 유전적 종 다양성 감소는 수천년 기간 동안 서서히 만들어진 생태학적 안정과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까지 무차별적으로 식용하는 인간의 보신문화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축산마저 공장식으로 변하면서 동물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사육되는 동물들 사이의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지면서 우려할 만한 현상이 생겼다. 동물공장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배양되고 확산하는 새로운 위험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¹⁾

아울러 전세계적 독점 기업들의 공장형 축산 방식으로 말미암아 농축산업 현장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²⁾

코로나19 사태는 근본적으로 인류가 저질러 온 실책과 탐욕의 결과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조망이 가능하다. 그것은 머지않아[2021년 말] 양산될 안정성 높은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 길게는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불과 2년 내에 — 지금까지는 새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4년이 걸렸다고 한다 — 완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2019년 12월 이전에 발생했더라면, 백신의 개발은 이처럼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2019년 12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적시에 활용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어느 과학자의 간증이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때에 맞추어 대규모의 인간 대상 임상 실험을 함으로써 mRNA 백신을 성공시킬 찰나에 있다. 만일 이 사태가 몇 년이라도 일찍 발생했더라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은 속도로 막는 효과적 mRNA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백신이 출시될 때 대량으로 분배할 전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인이자 생화학자로서 본인은 코로나 사태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있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³⁾

(ii) 신앙 공동체적 수준.

코로나 사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도 조망되어야 한다. 비록 이 심판과 고통이 징벌이 아니고 정화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리

1) 조용훈,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환경 책임,” 안명준 외 45인, 「교회 통찰」 (서울: 세움북스, 2020), p. 128. 또 이성호, “자연과 공존하는 삶: 코로나19의 생태적 이해와 생명존중 신앙으로 나아가기,” 포스트 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0), pp. 123-30에는 상기 내용이 상설되어 있다.

2) 리 험버, “질병은 왜 확산되는가?: 자본주의와 농축산업,” 마이크 데이비스 외, 장호중 역음, 「코로나 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서울: 도서출판 책갈피, 2020), pp. 33-6.

3) Fazale Rana, “The Covid-19 Vaccines and God’s Providence,” pp. 6-7 at <https://reasons.org/explore/blogs/the-cells-design/read/the-cells-design/2020/12/23/the-covid-19-vaccines-and-god-s-providence>, accessed on January 19, 2021.

적인 심판을 통해 세상의 도덕적 악을 벌하실까? 이에 대한 파이퍼(John Piper, 1946~)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신 이유는 질병과 재난 안에서 목격하는 물리적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

이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로 눈멀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를 보거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낀다 ...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다 ...

... 불행과 재난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장차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⁴⁾

(iii) 특정 개인 수준.

코로나 사태는 어떤 특정 개인의 죄를 처벌하는 표시일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성경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어떤 특정인의 죄 때문임을 명시하기도 한다(행 12:23; 고전 11:29-30).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욥 2:5, 7)이나 맹인(요 9:2-3)의 경우에는 그들의 질병이나 장애가 특정한 죄를 원인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그로 인해 죽음을 당했을 때 확정적으로 무슨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다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 (또 자기 나름대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비그리스도인의 도전

코로나 사태와 연관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로부터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든지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회의적 성향을 띤 젊은이들 또한, “세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 과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감추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적 유신론을 주창하는 이들이 항시 직면해야 했던 소위 “악의 문제”(problem of evil)이다.

악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먼저 자연적 악(natural evil)과 도덕적 악(moral evil)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악으로서, 해일, 폭풍, 홍수, 화산 폭발, 지진, 산사태, 전염병 등이 구체적 예인데, 보통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 이해된다. 후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저지르는 악인데, 전쟁, 학살, 고문, 강간, 성폭력, 밀렵, 환경 오염 등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삶의 실상을 보면 종종 자연적 악이 도덕적 악 때문에 악화되거나 증대되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산사태가 자연적 악이지만 무분별한 벌목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이는 도덕적 악으로 인한 자연적 악[인재]임이 분명하다. 비슷한 해석을 코로나 사태에 부여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근본 성격상 자연적 악이지만, 전기했다시피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 악화된 사태이므로 이 역시 도덕적 악이 자연적 악을 추동한 인재의 예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코로나 사태의 근인(近因)은 바이러스이고 원인(遠因)은 인

4) 존 파이퍼 지음, 조계광 옮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실천사, 2020), pp. 78-9.

간의 자연 착취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은 자연 세계의 해악과 참상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는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창 3:17)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각종 동물의 저주(창 3:14)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자연계의 저주가 아담의 타락에 기인한다고 하니, 질문은 더욱 근원을 타고 올라가 “그렇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하는 내용으로 탈바꿈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아담은 타락할 수도 있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타락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것이다.

물론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었는가?”라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와 악의 문제를 고민하는 어떤 변증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을 따르는 로봇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세계는 우리 인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악의 가능성이 없는 세계에 거주하길 바라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들 자신조차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의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이다. 우리는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역량은 사랑과 신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진정한 관계 등 놀라운 것들을 활짝 열어준다. 그런데 바로 그 놀랍고 좋은 역량이 **우리로 악을 행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악을 행해도 좋다고 허락하지는 않아도 말이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⁵⁾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 피조 대상이 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가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⁶⁾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존재 —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존재 — 를 만드셨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타락을 자초했고 이로써 자연 세계에는 질병과 무질서가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제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젊은이 세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강구해 보았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의 신앙이 좀더 심화될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는 결코 걸림돌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된다.

II. 코로나 사태: 청년 사역을 평가하기

코로나 사태는 전통적 형태의 청년 사역에도 제약과 차질을 가져왔다. 이 점은 개교회의 청년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청년부의 규모와 편제는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청년부든지 중추적인 사역 프로그램은 전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교회당에서의 집단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즉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소그룹 활동은 줌 모임으로 조정되었다.

(1) 코로나 시대의 사역에 대한 전망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대응 방안은 반응자의 수효만큼이

5) 존 레녹스 지음, 홍병룡 옮김,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서울: 아바서원, 2020), p. 50.

6) 이 설명은 기독교 철학자 알빈 플란팅가(Alvin C. Plantinga, 1932~)에 의해서 많이 알려진 “자유 의지 옹호론”(free-will defense)의 요체이다 [Cf. Alvin Plantinga,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Clarendon Press, 1974), pp. 166-7].

나 갈래가 많고 다채로왔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성과 다채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사역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제자가 목도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과거 지향적 유형**이 눈에 띈다. 이 유형의 반응자들은 은연중에 코로나 이전 시대의 사역 패턴을 표준으로 상정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 겪는 현장/대면 예배의 중단, 사역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연기, 각종 모임의 취소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 의식과 상실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 실행했던 사역과 모임의 재연을 꿈꾼다. 설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한 한 과거의 사역 형세에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과거 지향적 유형은 주로 예배와 성례를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⁷⁾ 이들의 고충과 고뇌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경적 본질로의 회복이 전통으로의 복구인 것처럼 암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하겠다.

둘째, **본질 추구적 유형**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이들은 코로나 발생 전에 수행했던 전통적 사역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는 간주하지 않는다. 예배든 주일 학교든 소그룹 모임이든,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교파의 전통이나 한국 교회의 토착화된 습속에 해당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할 때, 무엇이 본질[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바]이고 무엇이 형식[새로운 환경에서 여차하면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바]인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이들은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요소가 과연 사어버 공간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타진하고 있다.⁸⁾ 이런 방면으로 성과를 기대한다면, 가능한 한 선입견의 배제나 완화와 진지하고 솔직한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기술 통합적 유형**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이 유형의 명칭이 반영하듯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쌍수 들어 환영하는 반응자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망 형성에 있어서 실상 코로나 사태의 발생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얼마 전부터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에 힘입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진입했고, 코로나 사태는 단지 이러한 초연결적(hyper-connected)이고 초지능적(hyper-intelligent)인 사회로의 발전을 얼마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세태 변화를 감안하건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온라인 사역의 적극적 수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맥락에서 새로운 인간 이해, 확장된 구원론, 성숙 이원론의 극복을 외치는가 하면,⁹⁾ 어떤 예배학 전문가는 “디지털 인문학”이나 “디지털 종교”를 운운하기도 한다.¹⁰⁾

7) 예를 들어, 이정현,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본질 회복,” 『교회통찰』, pp. 317-8, 320-21을 보라. 또 교회론의 관점에서 비슷한 방안을 강조하는 이도 있다 (김지훈, “교회 공동체와 인터넷,” 『교회통찰』, pp. 447-9).

8) 발제자가 보기에는 윤영훈, “온라인 공간에 실험하는 새로운 교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pp. 37-55가 이런 시도의 예로 여겨진다. 또 기독교 교육의 맥락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힘쓰는 내용으로서, 함영주, “코로나19 시대, 가정과 연계하는 유초등부 신앙교육,” 권순웅 외 6인,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도 부천: 퍼톤치드, 2020), pp. 135-52를 참조하라.

9) 김은혜, “언택트 시대의 관계적 목회 가능성: 콘택트로서 언택트에 대한 신학적 성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pp. 26-33.

기술 통합적 유형에 속한 이들은 한편으로 선구자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디어 낙관론자이기도 하다. 우선은 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전망과 태도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¹¹⁾ 동시에 예배나 그리스도인 교제의 본질을 디지털 기술이 어디까지 매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을 거론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응자들이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형들은 한 개인에게서 복수적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인물은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에 함께 해당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반응자는 주로 둘째 유형을 강조하되 구체적 실행 방안에는 있어서는 셋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 본 발제자는 둘째 유형과 셋째 유형의 전망에 입각하여 코로나 시대의 청년 사역을 논하고자 한다.

(2) 청년 사역의 심사 1: 온라인 예배

청년들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11.3%로서 현장 예배에 대한 만족도 67.6%보다 훨씬 밑돌았다 [설문 VII, 7의 1) 항목].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비교해 어떤 점에서 결핍적인가? 또 그 결핍과 부족은 예배의 본질까지 건드리는 것인가?

(i)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비교.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구성 항목들을 열거하고 양편을 서로 대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대조표는 각 예배의 구성 항목들에 대한 것이다.

예배의 종류 구성 항목	전통적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1. 예배자 수효	여러 명, 예를 들어 10~50명	대부분의 경우 혼자
2. 예배 장소	예배당 (정해진 건물이나 장소)	집이나 사무실의 어떤 방/공간
3. 예배 도우미들(음악 팀, 설교자, 예배 순서 담당자 등)과의 공간 참여	동일한 장소/공간에 머무	다른 장소/공간에 떨어져 있음
4. 예배 순서의 경험	직접적(비매개적)으로 지각함	영상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함
5. 예배 분위기의 조성	예배 집중에 적합한 분위기	예배 집중이 쉽지 않은 분위기
6. 예배 정신	영과 진리로 예배함	영과 진리로 예배함
7. 예배자의 몸과 마음	몸의 참여, 전인적 참여	몸의 참여, 전인적 참여
8. 예배의 은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10) 테레사 베르거 지음, 안선희 옮김,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pp. 43-8.

11)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일은 적극 환영을 받아 마땅하다 (Cf. 김정준, “코로나19의 상황과 교회학교 운영의 새 방향,” 「교회통찰」, pp. 363-5). 이와 비슷한 자료로서, 김수환, “코로나19 이후의 온·오프라인 교육, 미디어와 종교등부,”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다」, pp. 153-71의 내용을 추천한다.

(ii) 예배의 비본질적 사항들.

이상의 대조표를 볼 때 1~4의 항목은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이다. 성경에는 예배자의 수효[1]가 어때야 한다는 데 대한 언급이나 힌트가 없다. 이것은 예배 장소[2]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하심으로써, 예배 장소의 비본질성을 내비치셨다. 예배 도우미들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3]도 핵심 사안이 될 수는 없다. 예배 순서¹²⁾를 경험하는 일[4]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배 순서를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cf. 고전 14:26)이 영상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간접적 경험 때문에 진정한 예배 행위가 방해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가 1~4 항목과 관련해서 현장 예배와 차이를 보이지만, 이로 인해 예배의 본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iii) 예배의 본질적 사항들.

그러나 6~8 항목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온라인 예배가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현장 예배와 다르다면,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우선,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같이 예배 정신[6]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예배 정신이란 예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다(요 4:23, 24).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자. 어떤 이는 이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나¹³⁾ “인간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진다. 설사 “성령 안에서”라고 해석을 해도,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의 심령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곳에서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초자연적 본질[인간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일: 인용자 주]과 그러한 생활을 분여하는 대행자 곧 성령을 함께 가리킬 정도로 충분히 모호하다”¹⁴⁾라고 말한다. 결국 예배는 외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의식(consciousness)/내면/인격이 예배 행위의 중심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이는 예수께서 진리이시므로(요 14:6), 결국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석할지 모르겠다. 이 해석은 위에서 “영”을 “성령”으로 간주하는 방안과 짝을 이룬다. 그리하여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진리 가운데에서”(in the Truth accomplished through Jesus Christ) 성부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삼위일체적 모형을 찾고자 한다.¹⁵⁾ 그러나 이 해석도 예배에 있어 “진리 체계”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12) 이곳에서 말하는 예배 순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양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사이에 큰 갭을 일으키는 예배 순서로서 “성례”[세례와 성찬]가 있다. 성례는 예배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신앙적 의미를 살릴 수 없는 의식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성례 문제는 별도의 취급이 필요하다.

이번 발제에서는 여건의 불비 때문에 성례의 주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성례와 연관한 간략한 논의 내용으로서, 이정현,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본질 회복,” 「교회통찰」, pp. 320-21을 추천한다.

13) Gary M. Burge, “John,” *Evangelical Commentary on the Bible*, ed. Walter A. Elwell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9), p. 853.

14) David J. Ellis, “John,” *The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 rev. ed., ed. F. F. Bruc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6), p. 1241.

15) John A. Bengel, *Bengel’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1: *Matthew-Acts* (Grand Rapids, Michigan: Kregel Publications, 1981 reprint), p. 584.

특히 당시의 예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오류[“알지 못하고” 예배함, 22절]가 지적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의 “진리”는 예배의 대상을 옳게 아는 일과 연관을 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인격의 중심부로부터 하나님을 옳게 아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만 이런 예배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의 경우에는 예배 정신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인가? 답변은 단연코 “아니다!”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과 연관되는 또 한 가지 항목은 예배자의 몸과 마음, 곧 전인적 참여[7]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것이 되려면 예배자의 몸도 예배자의 마음도 — 그리하여 그의 전인(全人)이 — 예배에 연루되어야 한다. 만일 예배자의 몸은 참여하되 마음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또 예배자의 마음은 참여하지만 몸이 배제된다면, 그 또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현장 예배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 양자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꽤 많은 이들이 마음은 참여하되 몸은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본질적 면모가 결여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 오해이다. 테레사 베르거는 온라인 예배가 인간의 몸을 비껴 나가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배 생활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혹은 온라인 예배란 육체에서 벗어난 가상의 ‘실재하지 않는’(un-real) 실행이라는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의혹들 뒤로 숨겨진 진실은 **인간의 몸이야말로 기독교 예배의 기본적인 물질성이며 가장 주된 매체라는 사실이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¹⁶⁾

비슷한 주장이 다음과 같은 설명에도 나타나 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은 디지털 가상 공간이 육체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야말로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의 물질적 매체라 할 수 있다 … 실제로 몸 없이는 어떤 디지털 세계에도 접촉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육체성과 완전히 분리된 비물질적 실행이라 간주될 수 없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¹⁷⁾

이처럼 온라인 예배 역시 전인이 연루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참된 예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¹⁸⁾

맨 마지막 항목인 예배의 은택[8]은 우리가 참되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만일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참되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예배 정신이 구현되고 예배자의 전인이 연루되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차

16) 테레사 베르거,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p. 64.

17) 윤영훈, “온라인 공간에 실험하는 새로운 교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pp. 45-6.

18) “온라인 예배를 보더라도 눈과 귀와 신체적 접촉이 필수이다” (김은혜, “언택트 시대의 관계적 목회 가능성,”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p. 19).

이가 없다.

(iv) 예배의 분위기 조성.

발제자는 지금까지 예배의 구성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는 중, 예배 분위기의 조성[5] 문제는 건너뛰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이다. 예배의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느냐 않느냐는 한편으로 예배의 비본질적 요소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예배 정신의 구현이 방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요소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별도의 취급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까지 미룬 것이다.

예배의 분위기 조성 문제는 설문 조사[VII, 7의 2) 항목]에서도 거론되었다. 청년들이 현장 예배에 만족하는 두 가지 큰 이유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65.8%]는 것과 “교회라서 예배 분위기가 더 조성된다”[26.1%]는 것이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온라인 예배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온라인 예배는 참여자들의 집중이 어렵고 또 예배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온라인 예배는 예배 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청년들의 불만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얼마든지 변화와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배 참석자가 예배 전에 주위 환경을 정돈하고 예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놓으면, 예배 환경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설문 조사 [VII, 6]에서 발견된다. 온라인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에 대해 답변을 시도한 청년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한 이들은 고작 48.1%뿐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한다”고 답한 이들이 무려 30.7%,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말한 이들이 21.2%임을 고려할 때, 애당초부터 온라인 예배의 예배 환경은 망쳐지기가 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심기일전하여 온라인 예배에 임한다면, 예배 집중과 예배 분위기 조성 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 예상이 된다.

발제자는 지금까지 예배의 본질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설명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예배 집중도의 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본 발제자가 현장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자든지 그래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왕 온라인 예배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예배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에의 참여가 여의치 않거나 꺼리는 이들 — (i)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신앙 공동체, (ii) 신체적 조건상[질병, 노쇠, 장애 등] 예배 현장을 찾기 어려운 이들, (iii) 먼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들, (iv) 가난한 성도들, (v) 제도권 교회는 꺼리되 기독교에 관심 있는 이들 —을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오늘날 청년 사역의 핵심으로 부각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의 본질이라는 각도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타당하고 적법할지 상당히 집요하게 탐색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찰과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가 청년 사역과 관련하여 걸림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 그리하여 어느 정도 디딤돌 노릇도 하는 것임을 —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3) 청년 사역의 심사 2: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

청년부 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또 다른 항목으로서 소그룹 활동이 있다. 이것은 교회나

공동체의 편익에 따라 목장 모임, 순 모임, 다락방 모임, 셀 모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까지 하나의 그룹을 이루며 청년들 사이의 사귄과 성숙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실제 모임은 성경 공부, 기도회, 나눔 등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있다.

(i) 줌 모임의 위상.

그런데 청년부의 소그룹 활동 역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어 종전처럼 모임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회원들 사이의 교제를 약화시킬 수 없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줌(Zoom)¹⁹⁾에 의거한 온라인 모임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줌 활용도는 아직도 매우 낮다. 설문 조사[VIII, 2의 1) 항목]의 결과를 보면, 청년들 가운데 줌 같은 온라인 장치들을 이용해 소그룹 모임을 가진 비율은 불과 25.3%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줌을 통해 서로 간 만남과 사귄을 추구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점,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다.²⁰⁾ 그래도 줌에 의한 소그룹 모임의 만족도는 77.4% [약간 만족: 61.0%, 매우 만족: 16.4%]에 달해, 사용자들은 이 수단에 대해 꽤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온라인 미디어 도구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경고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나온다. 특히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임을 강조하는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음성엔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한다. 남녀 사이의 교제나 직장 동료 사이의 교제, 사제지간의 교제 등 모두는 실제로 구체적인 인격체들이 모여서 정서 교감과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호 인격적 대화와 토론 또는 공동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온라인 ‘만남’을 전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이 교제는 ‘인격적’ 방식을 전제한다는 말이다. 앞에서 말한 가상공간에서의(virtual space) 교제가 전혀 무의미한 공동체적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회는 버튼과 키보드로 조작되는 ‘기계적’ 교제가 아니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²¹⁾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필연적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실체화되어야 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함께 살며 슬퍼하고 기뻐하는 실제적 교제여야 한다. 마치 성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된 것처럼,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는 실제적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땅에서 구체화시킨다. 이 구체적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던 ‘영지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 그렇기에 ‘언택트’ 상황은 교회론에서 볼 때 공동체의 본질적 내용이 결핍된 상황이다. 성도의 교제는 온라인상의 제한된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혹은 비대면접촉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인격적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교제 역시 그 양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²²⁾

이런 비판자들의 주장에는 최소 세 가지 다소 중첩된 진술이 담겨 있다.

1.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한다.

19) 여기에는 “줌”은 줄뿐 아니라 여타 온라인 실시간 미팅 도구들을 총괄하는 표현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유은희,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교회의 자기 성찰,”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pp. 184-6의 내용을 참조하라.

21) 권문상, “코로나 시대 ‘성도의 교제’와 성육신 모델,” 「교회통찰」, p. 137.

22) 김지훈, “교회 공동체와 인터넷,” 「교회통찰」, pp. 447, 448.

2. 성도의 교제는 영적일 뿐 아니라 몸으로도 실현되어야 한다.
3.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영과 육, 양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진술들에 비추어 보자면 온라인상의 교제는 본질적 내용이 결핍된 활동으로서, 기껏해야 참된 인격적 교제의 수단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영지주의적 오류를 연출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상기 판정은 여러 점에서 타당하고 또 납득도 간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왜 인격적 만남을 전제하는지, 인격적 만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과연 온라인상의 교제는 인간의 신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비인격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ii) 전통적 소그룹 모임과 줌 모임의 비교.

전기한 의문들을 해소하든지 합리적으로 다루려면 전통적 소그룹 모임과 줌에 의한 소그룹 모임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각각의 소그룹 모임이 어떤 구성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구성원끼리의 사귀를 목표로 한 소그룹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제 앞에서 다룬 예배의 경우처럼 먼저 대조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그룹 모임의 종류 구성 항목	전통적 소그룹 모임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
1.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총체적 파악	음성·표정·발화·보디랭귀지(body language) 등에 의해 상대방을 직접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음	주로 음성과 영상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간접적·부분적으로 파악함
2. 심리적 상호 작용의 활성화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들 사이에 심리적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짐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들 사이에 심리적 상호 작용이 완만하고 느슨하게 발전함
3. 신체적 접촉	손을 잡거나 어깨, 등을 두드리거나 가벼운 포옹이 도입될 수 있음	어떤 종류의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지 않음
4. 취식 행위	커피나 다과를 대접하든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함	음식 나누기는 일체 불가함
5. 상호 교제	구성원들 사이에 형제·자매 사랑, 돌봄, 용납과 용서 등을 실행함	구성원들 사이에 형제·자매 사랑, 돌봄, 용납과 용서 등을 실행함
6. 전인적 참여	몸과 영이 함께 소그룹 모임의 현장에 관계함	몸은 떨어져 있음; 영은 다른 이의 행위나 상태에 관여할 수 있음
7. 예수님의 임재	예수께서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하심	예수께서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하심

(iii) 소그룹 모임의 비본질적 사항들.

상기 항목들 가운데 1~4는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비본질적 사항으로 여겨진다.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총체적 파악 [1]은 바람직하지만 온라인 소그룹의 경우처럼 정도가 덜하다고 하여 소그룹 활동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상호 작용의 활성화[2]도 갖추어지면 좋지만 다소 원형성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소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망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신체적 접촉[3]과 취식 행위[4]가 소그룹 모임의 본질에 해당되지 않음은, 이런 요소가 배제되어도 얼마든지 소그룹 모임이 설정한 바 사귀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iv) 소그룹 모임의 본질적 사항들.

소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교제[5]는 확연히 본질적 사항에 속한다. 만일 소그룹에 연관된 이들과 형제·자매 사랑(롬 12:10), 돌봄(고전 12:25), 용납과 용서(골 3:13) 등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코 상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 — 사랑, 돌봄, 용납, 용서 — 은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의향, 내면적 상태의 표현, 언어와 음성·표정·손짓에 의한 뜻의 전달, 해명과 인정 행위 등 복합적인 구성 요소를 통해 구체화된다. 물론 이런 복합적인 구성 요소는 전통적 소그룹 모임뿐 아니라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에 못지않게 소그룹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예수님의 임재[7] 또한 정상적인 소그룹 모임이라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는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²³⁾ 만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소그룹 모임이라면, 이는 더 이상 참된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전통적인 소그룹 모임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줌 모임처럼 소그룹 멤버들이 각자의 장소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단연코 “그렇다!”이다. 어째서 그런가?

단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편재(偏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담겨 있다. 편재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점에 여러 대상(및 모든 대상)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적 속성이다. 전통적 소그룹 모임 — 구성원이 여섯이라고 하자 — 의 경우에는 여섯 명 모두[SS]가 한 장소에 모여 있고,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는 여섯 명의 구성원들 하나 하나[S₁, S₂ ... S₆]가 각각의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비록 SS와 S₁, S₂ ... S₆가 그들이 자리잡은 장소/공간의 면에서는 확연히 서로 구별이 되지만, 그것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실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이므로 SS에도 함께 하실 수 있고, S₁, S₂ ... S₆ 각각의 대상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서나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에서나 동일하게 현시될 수 있다.

(v) 전인적 참여의 문제.

소그룹 활동에 있어 개인들이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일[6]은 소그룹 모임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전인적”이라는 말은 몸과 영 모두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전인적 참여가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 반면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의 경우에는 “전인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참여자 각 개인은 몸이든 영이든 다른 개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의 진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동시에 온라인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 모임으로서의 본질적 면모를 잃어 버리는 셈이 된다. 바로 이것이 온라인 소그룹 비판자들의

23) 어떤 해설자는 마 18:20을 15-18절의 내용과 연관시켜, 그리스도의 임재 약속은 교회의 합당한 권징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Kenneth L. Barker, ed., *The MIV Study Bibl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11), p. 1623]. 그러나 다른 주석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더 넓은 범위의 임재 약속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모이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기도든 조안을 구하는 것이든 거룩한 의식의 집행이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고 설명한다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Vol. III: *Matthew-Revelati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3), p. 86].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논리는 얼마나 타당한가?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서 참여자 각 개인은 영과 육 모두가 다른 이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는 대단히 부정확한 관찰이다. 우선 개인의 영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영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라.

고전 5:3-4 ³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⁴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바울은 위의 설명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밝혀 준다. 첫째, 바울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한다. 둘째, 바울의 영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거기 — 고린도 —에 현존해 있다. 셋째, 바울의 영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범죄한 자의 권징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 영으로의 임재를 언급하는 것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다.

골 2: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와 비슷한 진술을 한다. 비록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과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행함과 믿음의 모습을 목도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영적 활동이 골로새 교인들의 경우에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전에 대면조차 하지 않은(골 2:1) 대상인데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cf. 고전 2:1; 3:2; 4:15 등).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떤 주석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바울은 골로새 공동체와 신체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만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 위협적인 상황을 친히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바울]와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셨다 (고전 5:3-5 참조). 그와 골로새 교인들 양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심령(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의 것].²⁴⁾

이상의 설명은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고전 12:13), 몸은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다(롬 12:5; 고전 12:14, 26, 27). 각 지체는 다른 지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체 가운데 하나인 바울은 다른 지체들 — 고린도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등 — 에 대해 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온라인 소그룹 모임의 지체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줌에 의거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구성원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다.

24) Peter T. O'Brien, "Colossians," in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 eds. G. J. Wenham et al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4), p. 1269.

물론 아직까지도 문제가 제대로 다 풀린 것은 아니다. 몸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여전히 온라인 소그룹의 참여자들은 서로 간에 연결점 없이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 전인적 참여가 방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신체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들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영의 임재와 연관성은 간접적으로나마 신체적 차원의 임재와 연관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과 신체 사이의 상호 침투적 연접성으로 설명이 된다. 비록 인간이 영혼과 신체 [혹은 몸과 마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둘 사이에 긴밀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과 육의 구분이 무의미할 지경이다.²⁵⁾ 따라서 어떤 개인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친밀성을 누린다면, 그의 신체 역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친밀성을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장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몸과 신체적 면모에 좀더 근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기술은 장소상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적 차원에서의 근접성과 친밀성을 부여해 주었다.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온라인 장비들은 상대방의 신체적 요소와 면모[몸, 얼굴, 손, 표정, 음성, 몸짓 등]를 비록 영상으로지만 생생히 지각하도록 돕는 데 제격이다. 그러므로 영상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적 격리와 단절로 인한 낭패감은 현저히 경감될 수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온라인 구성원들은 신체적으로도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비록 구성원들의 몸이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서처럼 한 장소에 존재론적으로 출현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통한 간접적 “임재”와 온라인 장비에 의한 기술적 도움 덕분에 흡사 몸까지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맞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이 “전인적” 참여라는 특성에 어긋나는 “기계적” 혹은 “영지주의적” 활동이라는 발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비록 전통적 모임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온라인 소그룹 모임 역시 그 나름대로 전인적 참여를 구현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발제자는 이번 분단에서,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이 그 적법성이나 진정성의 면에서 결코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 뒤지지 않음을 설명했다. 그것은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서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는 상호 교제, 전인적 참여, 예수님의 임재가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역시 그렇다고 하여 — 예배의 경우에 비슷하게 밝혔듯이 — 전통적 소그룹 모임을 모두 온라인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자는 말은 아니다. 줌에 의거한 소그룹 모임은 때로 전통적 소그룹 모임에 대한 대안이 되거나 전통적 소그룹 모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소그룹의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 예시 사항으로서는, (i)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효율적 대안이 됨, (ii) 기상 조건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황 [폭설, 호우, 태풍 등]에서 1~2회 시행할 수 있음, (iii) 피치 못할 사정 [아이가 아파 집에 있어야 함,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모임 장소까지의 이동이 번거로움, 옆 도시로의 이주, 해외 출장 등]이 있는 소그룹 구성원에게 줌 활용을 권고함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25) 만일 어떤 이가 실제 일원론의 주창자이라면, 더더욱 영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의 긴밀성에 동의할 것이다.

발제자는 이번 분단에서 청년 사역의 또 다른 중추적 프로그램,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과연 그 의도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역시 이런 작업은 코로나 사태의 부재에서는 착안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를 단지 걸림돌로만 인식하지 말고 디딤돌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겪고 있다. 청년부 사역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 사태를 단지 걸림돌로만 치부하려는 좁은 소견은 합당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솔직한 태도로 응수한다면, 또 청년 사역의 중추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그 진정성의 면에서 진지한 자세로 평가해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코로나 사태는 이미 디딤돌 노릇 또한 수행하고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입원생(석사전원장학생) 모집 안내

I. 전공 및 학위 과정

- 가) 실천신학석사과정 (Th. M. in Practical Theology) 제33기 - 2년 과정(*장학생 선발-아래 "X. 장학금" 참조)
- 나) 실천신학박사과정 (Ph. D./Th. D. in Practical Theology) 제29기 - 3년 과정
- 다) 실천신학통합과정 (Th. D. in Practical Theology) 제29기 - 4년 과정(*통합과정은 석, 박사통합과정을 말함.)

II. 모집인원

- 가) 실천신학석사과정 : 00명 / 세부분야 선택 (*세부분야 : 실천신학, 설교전문)
- 나) 실천신학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 0명 / 세부분야는 1지망, 2지망 선택가능
(*세부분야 : 목회와 사회, 예배와 설교, 교회와 교육, 선교와 봉사, 목회상담학)
- 다) 실천신학 석,박사과정 편입학 : 0명 (통합과정 제외)

III. 시험과 전형방법

- 가) 실천신학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나) 실천신학박사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다) 실천신학박사과정 필기시험 과목 : Th. D. 과정(통합과정포함)-신학일반 / Ph. D. 과정-신학일반과 어학시험
- 라) 실천신학 석,박사과정 편입학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IV. 지원서 접수기간 : 2020년 12월 15일(화) ~ 2021년 2월 9일(화) 17시까지

V. 시험 및 면접일시

- 가) 실천신학석사과정 면접시험 : 2021년 2월 15일(월) 오전 10시
- 나) 실천신학박사과정 필기시험 : 2021년 2월 15일(월) 오전 10시
면접시험 : 2021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다) 실천신학석,박사편입 면접시험 : 2021년 2월 15일(월) 오전 10시

VI. 지원 자격

- 가) 실천신학석사과정
 - i) 국내 정규 신학대학원(교육부 인가)과 공인된 외국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 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이. 또는 신학사(Th. B.) 학위 소지한 이.
 - ii)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할) 이(평신도지도자 포함).
- 나) 실천신학박사과정
 - i) 국내 정규 신학대학원(교육부인가)과 공인된 외국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일명 M. Div.) 학위 또는 신학석사(Th. M.) 학위를 소지한 이. 또는 특수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 ii) 실천신학석사(Th. M. in Practical Theology)학위를 가진 이.
 - iii) 타대학 졸업생의 경우 실천신학과목 추가 이수 요구 가능.
 - iv) Th.D과정 선택시 Ph.D과정으로 변경 불가.
- 다) 실천신학통합과정 : 실천신학석사과정 자격에 준함.
- 라) 실천신학석,박사 편입학 (별도 문의 요망)
 - i) (타)전공 석,박사학위과정 이수자 및 수료자(단, M.Div, D.Min, D.Miss 만으로는 지원불가)
 - ii) 박사과정 : 필요시 어학시험 요구 가능(Ph.D과정)

VII. 지원서 접수 방법

- 가) 지원서는 학교홈페이지(www.gspt.ac.kr) 입학안내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원서는 방문접수와 우편(등기)접수 둘다 가능.

VIII. 제출서류

- 가) 입학지원서 원본, 수험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 나)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cm×4cm)-원서, 수험표 부착
-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라)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
- 마)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
- 바) 전적 대학원 수료(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편입학에 한함)
- 사) 목회경력 증명서(각 교단이나 교회에서 발급)-목회자에 한함
- 아) 자기소개서 1부(자유 양식, 현재 목회사역에 관한 소개도 포함할 것, A4 2장 분량)
 - * 외국학위자(졸업, 수료 등)는 위 서류를 추가하여 별도 서류제출 요함.(입학안내 게시판 참조)
 - * 외국인전형은 별도 모집요강 참조(입학안내 게시판)

IX. 전형료 : 석사과정 70,000원 / 박사과정 120,000원

(계좌이체 : 국민은행 230101-04-330776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X. 장학금 : 실천신학석사과정 입학시 전원 1~3학기 40% 장학금 지급(입학금별도)

XI. 접수장소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학처 (17304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11번길 311-43번지)

* 입학 상담 / 교학처장 이 범 성 박사 (010-7720-0325)

입학 절차문의 / 학교전화 : 031)638-8657 Fax: 031)638-8659 홈페이지: www.gspt.ac.kr

■ 21세기교회연구소 ■

현재 한국교회는 큰 변화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여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현대의 사회 상황에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본교 교수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1세기교회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목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 교회에 목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한국 교회에 알리고 회원 교회들에게는 무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1회 연구소 설립 기념 세미나는 “한국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2015)를 주제로 열렸고, 제2회 세미나는 “평신도의 교회 선택과 교회 만족도 조사”(2016) 결과 발표회(‘한국교회탐구센터’와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제3회 세미나는 “역사와 개혁의 실천: 종교개혁과 실천신학의 의미”를 주제로, 제4회 세미나는 “소형교회 리포트”(‘한국교회탐구센터’와 공동주최)를 주제로, 제5회 세미나는 “가나안성도 신앙생활탐구”(‘한국교회탐구센터’와 공동주최)로, 제6회 세미나는 “다음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 기독청소년 의식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와 공동주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21세기교회연구소가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소에 후원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230101-04-522506(예금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21세기교회연구소 소장
정재영 올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경기도 이천시 신문면 마소로11번길 311-43(우:467-841)

Tel. (031)638-8657,8 Fax. (031)638-8659

Homepage. www.gspt.ac.kr E-mail. mail@gspt.ac.kr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는 지난 120년 동안 초기의 민족적 수난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민족과 함께 고난받으며 괄목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비난을 받으며 쇠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 개혁을 위한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과거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성찰함으로써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뼈저린 회심과 새로운 비전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The Research Center for the Korean Churche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작은 몸짓으로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한 탐구’를 모토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답습해 왔지만 성서적·신학적·역사적 기반은 모호한 한국 교회의 관행과 면모들을 하나하나 밝혀 갈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진지하게 탐구할 것입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한국 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해 우리의 신앙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선지자적 연민을 함께 일깨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년 ‘교회탐구포럼’을 개최함은 물론 연구 활동 및 자료 발간 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2011년), “한국 교회와 여성”(2012년),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2013년),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2014년),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보기”(2015년),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2016년),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2017년),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2018년),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2019년),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2020년) 등의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과학의 발전과 과학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2016년부터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동영상 제작 및 과학과 신앙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담아내는 “스펙트럼:과학과 신앙” 총서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바라며 “신학 블록버스터”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한국교회탐구센터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56-10, 4층

전화 070-8275-6314

팩스 02-333-7361

이메일 tamgooocenter@gmail.com

웹페이지 tamgoo.kr

교회탐구포럼 | 하나님나라를 위한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한 탐구

- 01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 정주채 배종석 송인규 정재영
- 02 한국 교회와 여성 | 이덕주 이정숙 송인규
- 03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 방선기 임성빈 송인규
- 04 교회와 성(性), 잠금 해제? | 이상원 정재영 송인규 김창서
- 05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 | 정성국 지형은 송인규
- 06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 정재영 송인규 노종문 김명호 김지방 양희송 황병구
- 07 종교개혁과 평신도의 재발견 | 이재근 송인규 정재영 평신도 19인
- 08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 송인규 양혜원 백소영 정재영 김애희 정지영
- 09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 김선욱 최종원 김희권 송인규 이일 김동문 송진순 정재영
- 10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출간 예정)



과학과 신앙 | ‘스펙트럼: 과학과 신앙’ 발간, 도서 번역,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영상

- | 스펙트럼 |
- 01 뇌과학과 기독교 신앙
 - 02 외계인과 기독교 신앙
 - 03 인공지능과 기독교 신앙
 - 04 지질학과 기독교 신앙
 - 05 공룡과 기독교 신앙

- | 도서 번역 |
- 과학과 성경의 대화 | 버나드 램
 성경 바위 시간 | 데이비스 영, 랠프 스티얼리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 리처드 J. 마우 외
 창세기 격론 | 칼 헨리, 존 월턴, 데이비스 영 외



|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는 ‘과학과 신앙에 대한 101가지 질문’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했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과학에 관심 없었던 분들께는 생각할 기회와 고민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평신도 신학 | 신학 BlockBuster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책덕후 목사 홍쌤 홍순주, 신학의 장벽을 넘고 있는 TK 김태경과 함께하는 신학공부! 홍쌤의 블록과 TK의 블록에 나만의 블록을 더하여 차근차근 신학의 기초를 쌓아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는, 두꺼운 신학책을 한 권씩 함께 읽어가며 문턱을 넘어보는 좋은 기회!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영상 및 소식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

1. Youtube에서 ‘한국교회탐구센터’ 검색 후 ‘구독하기’
2. Facebook 한국교회탐구센터 페이지 ‘좋아요’로 소식 받아보기
3. 카카오톡 채널 ‘한국교회탐구센터’ 검색 후 ‘채널추가’ 하기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연구소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넘버직]**의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 1) 사회 일반 데이터, 사회 여론조사, 공공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 2) 자체 조사(여론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를 통해 분석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 3) 매주 금요일 2시 이메일 주소로 무료 발송합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 www.mhdata.or.kr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말앰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교육자협의회(한목협), 햇볕회